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라 말한 다 할지라도 현혹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이 문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주안에서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9-10

트랜스젠더 청소년, 대명사, 선호하는 이름 등 새로운 질문과 씨름하는 청소년 목회자 Z세대 성 소수자 수용에 대한 논의가 복음주의 교회에서 요구되고 있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많은 보수적인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가상의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이미 트랜스젠더 동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근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사람 중 약 20%가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이며, 따라서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교회 지도자와 멘토들이 자라면서 직면하지 못했던 질문과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이들은 성별이 생물학적 성별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것을 혐오나 차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인디애나주 카멜에 있는 Northview 교회는 성별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성경적으로 정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청소년 담당 주드 라이트 목사는 이 주제가 얼마나 민감한 주제인지 잘 알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친구들이나 교우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예수님이 각각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신 예를 들었다.

“관계에 대한 고민 없이 진리와 성경에만 집중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라고 라이트



목사는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아닙니다.” 약 15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그룹에서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성과 젠더에 대해 질문한다. 이에 대해 라이트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담긴 사랑과 긍휼을 지적하며 정체성 투쟁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이트는 말했다. 그는 교회가 공감과 사랑, 감수성을 갖고 이러한 질문에 응답할 때 그 선하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믿는다.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공격, 성폭행 등 트랜스

젠더가 직면한 어려움을 반영하는 설문조사와 증언이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전국 성 소수자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 소수자 청소년의 대다수가 우울증을 경험했으며, 특히 트랜스젠더는 다른 청소년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자살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포괄적인 설문조사 데이터는 옹호 단체인 전국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에서 실시한 것으로, 이전에는 종교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들 중 19%가 “거부감으로 인해” 종교 공동체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성별 위화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별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6년 전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학생들은 여전히 진화, 기적, 악의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라고 플로리다주 펠버른에 있는 Eau Gallie First Baptist 교회의 청소년 담당 목사 크리스 오브라이언은 말한다. “이러한 질문은... 대부분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질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이 대화에 관해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가질 때가 아니다”고 그는 말했다. 성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이므로 사랑으로 진실을 들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바벨론이라는 대학을 이겨내는 다니엘의 세 가지 지혜

시련과 환난, 사회적 칼날이 닳쳐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을 바벨론에 두신 하나님, 사자 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풀무불 속에 서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신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삼백 명의 학부생이 있는 강의실에서 아이를 낳지 말라고 말한 교수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진짜 문제는 이어진 웃음 없는 침묵이었다. 수백 명이 일제히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는 데에 위험이도 사리고 있었다.

올해 가을, 전국에 걸쳐서 부모들은 자녀를 세상으로 보낼 준비를 하며 미니 냉장고와 기숙사 액세서리를 차에 싣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에 진학하는 젊은이들을 향한 기독교 공동체의 불안은 커졌고, 그건 당연하다.

새내기 대학생이 지금 바벨론으로 들어가고 있다. 비록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들어간 게 자발적인 건 아니었지만(그는 강제로 유배당했다), 그럼에도 그가 거기서 보여

준 성경적 신실함의 모범은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격려가 될 수 있다.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정치권력 아래에서 세속 동료들과 함께 엄격한 세속 교육을 받았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대학생에게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방법만이 아니라 변역을 누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부터 살펴보자.

1. '왕의 식탁'을 피하라.

바벨론의 사상은 다니엘을 흔들지 못했다. 오늘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갈데 아 문학을 공부할 때 점성술, 점술, 부도덕한 신화 등 기존 이스라엘 신앙에 적대적인 많은 사상을 접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들은 사회적 압력이야말로 강단에 선 교수의 이념적 호언장담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심을 허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9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푸른초장 조응철 목사



4면 인터뷰 비온드 유토피아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왕)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LA 동부장로교회 창립 50주년 LA Eastern Presbyterian Church 50th Anniversary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We cordially invite you to celebrate with us. 2023년 9월 24일, 주일 September 24th, 2023, the Lord's Day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 오전 11시 대예배실 50th Anniversary Thanksgiving Service, 11 AM 창립 50주년 감사 찬양제: 오후 2시 대예배실 50th Anniversary Praise Service, 2 PM 창립 50주년 감사 축제: 오후 4시 친교실 50th Anniversary Fellowship, 4 PM 담임 목사: 김정오 Rev. Jung O. Kim, Senior Pastor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놀턴 코너) 웹사이트: www.epcla.org | 문의: (213)383-3261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평창의 달밤

"아오~하, 시일라의 바야암 이이여허" 현인 씨가 원래 그렇게 불렀듯이 역시 "신라의 달밤"은 감칠맛 나게 꺾으면서 불려야 제맛이다. 지금 필자는 평창의 달밤에 이 글을 쓰고 있다. 평창의 달밤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교단의 파송을 받아 9월에 한창인 한국 교단들의 총회에 친선 사절단의 일원으로 와서, 그 첫 번째 "대한 예수교 장로회(대신)" 총회에 인사와 설교차 이곳 평창에 이른 것이다. 따뜻한 환대를 받고 마련해 주신 숙소에 올라왔다. 신라가 그렇듯이 평창도 한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한 장소가 되었다.

평창은 널리 알려진 대로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제 23회 동계 올림픽이 열린 곳이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설원을 가르며 경기를 치른 곳으로 한국 역사와 세계 스포츠 역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장소가 된 것이다. 그 당시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치가들은 늘 그러고 싶겠지만 어떤 분야든 정치가 의도적으로 개입되면 그 분야의 맑은 순수성이 훼손된다. 그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도 그렇다. 단일팀이 평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수년동안 준비와 훈련을 감내해온 선수들 중에 절반은 정치적 논리에 아무 말도 못 하고 뒷전으로 물러나야 했다. 아무튼 그 때 평창에 왔던 북한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과 선수 임원 연주자들은 평창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북으로 돌아갔을까.

지난 주말에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 탈북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Beyond Utopia"의 실제 주인공들이 방문하였고 주일에는 짧은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북한의 폐쇄된 사회 속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북한이 유토피아, 지상낙원인 줄 안다.

그러나 평창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돌아간 사람들은 지상낙원에 대한 생각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평창에서 자기들의 "Utopia" 너머를 본 그들은 더 이상 왜곡된 유토피아에 속지 않을 것이다. 평창은 북한의 가짜 유토피아를 고발한 역사적 자리이다. 물론 평창도 영원한 유토피아가 아니다. 영원한 낙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한 곳밖에 없다.

아름다운 평창의 달밤은 기울어져 간다.

지친 목회자를 위한 소망

“목사들이여,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목회 서신서 연구는 신학교 목회 인턴십, 레지던트, 사역 과정의 필수 요소이다. 미래의 목회자라면 이 편지들로부터 기초를 쌓아야 한다. 왜냐하면, 목회 서신서야말로 모두가 동의하는 신약성경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는 직분의 성격, 목회 소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를 돌보는 방식이 나와 있다.

Pastor, Jesus Is Enough: Hope for the Weary, the Burned Out, and the Broken(목사들이여,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지친 이들, 탈진한 이들, 부서진 이들을 위한 소망)의 저

자 제레미 라이트볼은 목회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세 권의 목회 서신에만 내용을 국한하지 않는다. 저자는 미시간 플리머스에 있는 Woodside Bible Church의 담임목사이다. 그는 결코 사역이 주는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저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가 어떻게 목회자에게 격려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첫 세 장은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목회자가 깨달아야 하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Pastor, Jesus Is Enough"

JEREMY WRITBOL

만족한다는 것은 곧 지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목사들이여, 좋은 소식은 당신만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할 수 있다.

제레미 라이트볼은 이 책에서 요한계시록 2-3장 속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 에 귀를 기울이라고 목회자들을 초대한다. 요한계시록 2-3장의 권고는 교회 전체를 향한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목회자들을 향한 권면이 들어있다.

LEXHAM PRESS, 192 PP.

목회 초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에 관해서 기록한다(계 1:16). 그는 "이들이 일곱 교회의 천사들(the angels of the seven churches)"(20절)이라고 설명한다. 교회 자체는 "일곱 촛대"로 묘사된다(12, 20절).

그러면 "일곱 교회의 천사"는 누구일까? 얼핏 문맥을 보면 "천사"는 초자연적인 수호천사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터 라이트하트(Peter Leithart)와 개혁주의 가르침의 오랜 역사를 따르는 저자는 요한이 지금 말하는 사자가 교회마다 특별히 지정된 천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사자(使者, messenger)인 목사라고 주장한다. "이 편지는 예수님이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 주는 개인적인 가르침이다."(6)

이런 해석적 접근 방식은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 역할을 한다. 마치 안경을 새로 맞추는 것처럼 목회적 의미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춘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왜곡되었던 이전의 나 자신과 나의 사역을 깊이 되돌아 볼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직접성은 회개가 필요한 곳을 지



적하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하라고 격려한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책이 가지는 중요성이다.

권고와 격려

요한계시록 처음 세 장의 대상이 목회자라는 주장을 펴는 저자는 일곱 편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목회자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을 끌어낸다.

저자는 목회자를 변명하지 않는다. 목회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소명임을 이해하기에 결코 목회 기준을 낮추지 않는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꾸짖음을 강조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가 자신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대표) (213) 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 886-4400(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전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워싱턴, 뉴욕, 뉴저지 포스메가 남성 합창단 미 동부 공연

POSMEGA MALE CHOIR

Conductor 강기성
Piano 최혜진

2023. 10. 1.Sun 10:30 am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시무)

2023. 10. 1.Sun 5:00 pm
뉴욕 장로교회 (김학진 목사 시무)

2023. 10. 4.Wed 7:30 pm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 시무)

2023. 9.29.Fri 7:00 pm
와싱턴 중앙 장로교회 (류응렬 목사 시무)

주최 포스메가남성합창단
주관 뉴욕 뉴저지 대광중고등학교 동문회
후원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퀸즈 장로교회
뉴욕 장로교회, 필그림 선교교회
문의 송성렬 (201) 321-9901
김찬동 (646) 300-5891
한성혁 (718) 570-5577

트랜스젠더 청소년, 대명사...

(1면에서 계속)

젠 샌드(Gen Send)의 디렉터인 세인 프루이트도 같은 경향을 목격했다.

“예전에는 ‘무슬림 친구나 다른 세계 종교를 믿는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늘 받곤 했습니다.”라고 프루이트는 말한다. “이제는 ‘성소수자라고 밝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더 자주 받습니다.”

교회 정책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믿는 교회들에서도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방식과 정책은 다양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11,000명 이상의 청소년 지도자들이 모인 비공개 페이스북 집단에서 성별 대명사를 주제로 한 게시물이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한 사람은 자녀가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비생물학적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위배되며 “영혼을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목회자는 “그들은 진리가 필요하며, 교회가 정한 뒤틀린 틀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지속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교회에서 대명사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잭 카터 목사는 작년에 9Marks 웹사이트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청소년의 집단 활동에 참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정책을 제공했다. 이 정책은 참여 학생에게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성별에 따라 생활하고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대명사, 복장, 적절한 화장실, 라커룸, 지정된 수면 공간, 그룹 및 수업 등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지침이나 정책이 없는 일부 교회에서는 성 정체성에 대한 대화를 설교에서 언급하여 청소년 집단의 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링컨턴에 있는 Freedom 교회의 학생 및 운영 담당 목사인 아론 스웨인은 교회가 “아름다움, 부서짐, 성별 이분법”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묘사했다”고 말했다.

“비록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성도들이 트랜스젠더 이웃과 동료를 경멸하거나 농담, 조롱하지 않고 진정한 관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독려했습니다.”

스와인 목사는 청소년 모임에서 더 깊은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고린도전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향해 결혼의 본질과 성, 이혼 및 성 역할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한 학기에 한 번씩 학생들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Q&A의 밤을 주최합니다.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질문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라고 스와인은 말했다. “하나님의 설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성 소수자 이웃을 진정한 애정으로 갖고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가르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프루이트는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긴장하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라고 프루이트는 CT에게 말했다. “우리가 복음을 한 세대에 전하려 하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전 학생 사역의 리더인 세스 스투어트는 한 학생이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을 때를 회상하며 글을 썼다. 스투어트는 그 학생이 말하는 동안 조용히 기도했고, 그 학생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감사해했다고 말했다.

스튜어트는 “그 학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복잡한 상황에 귀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데 청소년 모임에서 이런 대화를 짧막하게만 논의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한 다음 그 학생에게 다음에 만나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스튜어트는 “헤어지기 전에 저는 전통적인 성경적 성 윤리를 믿으며, 앞으로의 대화에서 동성 간의 매력이나 성전환을 긍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싶었습니다.”

스튜어트의 교회는 학생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교회 내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등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려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명사 논쟁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대명사는 트랜스젠더를 대할 때 가장 많이 논의되고 논란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양심과 그러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며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성도들의 신념을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텍사스 침례교 기독교 생활위원회의 윤리 및 정의 책임자로서 성별과 성 문제를 다루는 데이비드 산체스는 말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로 다른 사람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성도들의 노력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청년 목회자 신학자’의 설립자이자 마이크 맥개리 목사는 대명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고 말했다.

“전도를 위해 저는 방문객들이 요청하는 성별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라고 맥개리는 CT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자랐거나 이미 알고 지내는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어렵다고 솔직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맥개리는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름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통해 받지 않는 학생에게 더 은혜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맥개리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사역을 지도할 때 성 정체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남녀를 모두 포함한 집단을 고수할 것을 권한다. 그들이 선호하는 성별을 가진 집단에 가입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맥개리는 성 소수자나 젠더에 관한 대화가 교육에서 우선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는 성 소수자 문제를 정신건강의 위기와 유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문제를 다룰 때 적용하는 점은 미묘한 방식으로 자주 언급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 리더십 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환영하며, 성경에 따라 그들을 인도하여 우리가 그들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포커스 온 패밀리(Focus on Family)와 같은 보수적인 단체도 청소년 지도자와 부모를 위한 자료를 내놓았다. 이들은 비생물학적 대명사 사용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영적, 심리적, 사회적, 생물학적 요인”을 포함하여 성별 위화감을 둘러싼 여러 요인을 신앙적 연민을 바탕으로 인식하도록 사람들을 안내한다.

전국적 움직임

성소수자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뉴욕시와 워싱턴주처럼 도시적이고 진보적인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이 문제를 정기적으로 접하고 있다.

시애틀의 청소년 사역자 케이트 파우스트는 청소년 집단에서 ‘예비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다. 평생 교회를 다닌 신자들과 초신자들이 섞여 있는 이 집단에서 파우스트는 연민을 갖고 현실적인 관점으로 육체에 대해 가르친다고 말한다.

파우스트는 “항상 육체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육체가 진정한 자아 형성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말한다. “육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실을 말해줍니다.”

(12면으로 계속)

시론

9.11의 아픔을 넘어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벌써 9.11테러가 있는 지 22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충격은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날의 흔적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구한 고마우면서도 눈물로 채워진 사랑의 모습도 보입니다. 바로 UA93편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연방항공청 관제센터에 비행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가 꺼진 3대의 비행기가 나타납니다. 보스턴을 출발하여 로스앤젤레스로 운항하던 AA11편과 UA175편 그리고 뉴아크(Newark)를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AA 77편이었습니다. 아침 8:46분 AA11편이 제1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충돌하였고 17분 뒤인 9:03분에 UA175편이 제2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충돌합니다. 34분 후인 9:37분에 AA77편이 미국방부 건물에 충돌함으로써 미국과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아크공항을 이륙하여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UA 93편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됩니다. 이미 이때는 세계무역센터에 2대의 비행기가 충돌한 이후입니다. UA93편은 승무원 포함 44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테러리스트에 의해 기장국 부기장이 조정실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이렇게 비행기 조정실을 장악한 테러리스트들은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에 이어 또 다른 워싱턴에 있는 공격목표 건물을 향해 비행기를 선회시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까지 불과 20여분 남긴 지점에 이른 오전 10시 3분, 이 비행기는 아무것도 없는 들만에 추락했습니다. 추락 소식을 들은 연방항공청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비행기 기체와 시신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비행기의 음성녹음파일 등을 들고서 야 상황을 다 알게 되었는데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가던 자신들의 비행기가 납치된 후, 은밀하게 가족들과 전화를 한 승객들이 이미 세계무역센터에 2대의 비행기가 충돌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즉각 자신들의 비행기 역시 워싱턴에 있는 중요건물 -백악관이나 국회- 에 충돌할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그 때 토드 비머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 끓는 물을 사용하며 비행기를 납치한 테러범들을 한꺼번에 공격하여 제압하게 됩니다. 기내 승객들이 있던 장소에 있었던 테러범들은 제압했지만 기장실에서 비행기를 조정하던 테러범들은 제압하지 못한 가운데 기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장실에서 비행기를 조정하던 범인들이 알게 됩니다. 상황을 알게 된 테러범들은 고의적으로 비행기를 급작스럽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함으로써 승객들이 조정실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도하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마지막에는 비행기를 땅에 추락시킵니다.

이날 비행기 안에서 테러범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걸고 저항을 이끌었던 사람인 토드 비머는 임박한 자신들의 마지막 시간을 감지하고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읽으며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2014년 9월 11일 비행기가 추락한 장소에다 추모비를 세우고 희생된 탑승객들에게 의회훈장을 바쳤습니다.

가장 아프고 무서운 순간에 가장 귀한 삶의 흔적이 만들어 짐을 보며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신앙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 살롬 -

hankschoi@g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우상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신혼 시절에 있었던 부끄러운 기억 하나가 가끔씩 떠올라 나를 돌아보게 만든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백금 링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호사스러운 반지를 결혼 선물로 받았

다.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고가품이어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나이에 비해서 외모가 어려 보여서 가끔씩 무시를 당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늘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다. 내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이 결혼 반지는 나의 정체성을 때때로는 일깨워 주기도 했다. 아! 이제 나는 처자가 있는 몸이구나! 한 가정의 가장이로구나! 반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입지를 바로 확인하기도 했다.

화장실에서 딱히 읽은 거리가 없을 때엔 여지없이 다이어몬드 반지를 꺼내 들고 불빛에 비춰 보면서 영롱하고 찬란한 가지각색의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의 황홀함에 빠지는 여인들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기도 했다. 콩 한 톨 크기도 안되는 쪼그만 다이아몬드 조각에 취해서 내가 마치 부요한 왕이 된 기분... 취하기도 하면서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은근한 자위감에 빠지곤 했다.

그런데 이 백금 다이아몬드 반지가 작은 실망을 안겨주곤

했다. 한 두 주간 끼고 다니면 반지 색깔이 검게 변하면서 귀티도, 부티도 사라져 우중충해 보였다. 그때마다 원래 백금 성질이 그렇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치약으로 정갈하게 닦아 내곤 했다. 그러면 다시 은은한 자태를 드러내곤 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던 어느 날 반지를 타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떨어진 순간에 반지는 알맹이와 몸체가 둘로 떨어져서 아주 불품없는 꼴이 되고 말았다. 마치 내 행복한 삶이 깨어진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초라해 보였다. 백금 링은 마치 군사들을 잃어버린 패전의 장수처럼... 홀로 남은 다이아몬드 부품은 시녀들이 다 떠나버린 쫓겨난 공주처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급remium 해버렸다.

정말 보잘 것 없는 작은 조각난 반지를 싸 들고 동서 형님이 운영하는 금은방으로 달

려갔다. 내가 받은 결혼반지는 금은방 사업을 하는 처형 부부가 결혼 선물로 제공한 것이었다. 며칠 후에 전화가 걸려왔다. '하!하! 이런 경우가 있네... 그 백금반지 말이야... 백금이 아니고 오백원 짜리 동전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하네...' 세상에 이런 일이? 실무를 모르는 주인을 세공업자가 속여왔던 것이 탄로가 났다. 한 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여러 업체에서 잇속을 차린 그 직원은 범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했다. 난 그때 정신이 퍼뜩 돌아왔다. 그래! 이 눈곱만한 다이아몬드에 눈이 어두워 그걸 들여다보며 행복을 느껴? 오백원짜리 동전이 부티가냐? 하! 하! 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물론 그 작은 반지에 목숨을 건 것은 아니었지만... 잠깐이라도 헛 것에 마음을 줬다는 것 자체가 몹시도 부끄럽게 느껴졌다. 작았지만 깊은 깨달음

과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시 115:4) "우상은 거짓이고 생기가 없고, 헛 것이라"(렘 51:17-18)

그 날 이후로 지금까지 내 손가락에는 영롱한 다이아몬드 백금 반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가락지가 끼여 있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 1:17)

내 자신의 삶이 주께서 세우신 높은 산 동네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찬란한 등불이 되게 하소서! 아무 것도 없는 내 손가락을 보며 오늘도 기도를 드린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조응철 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시내산은 율법의 산입니다.

4. 갈멜 산

갈멜 산은 엘리야의 산입니다. 불의 산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산이요, 기도의 산입니다.

이 갈멜 산은 팔레스타인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답고 수목이 울창해지고 불에는 백합화가 만발하는 풍요하고 푸른 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35:1-2)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했습니다. 참으로 갈멜 산은 기도의 산이요 택한 백성의 축복의 산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고 큰 비소리(은혜의 소낙비)를 듣고 또 보는 것입니다.

5. 헬몬 산

이 산은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변화하신 변화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상에서 놀 때때로 신비로운 경험을 얻기도 하고 신비로운 현상을 보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 5:-7:)

예수님은 때때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에 가실 때 대개 홀로 가셨습니다.

그중에 복음서에 나타난 가

만나면 변화를 받습니다.

6. 감람 산

끝으로 감람산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지상 생활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 감람산과 더불어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 첫 기슭에 겿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늘 즐겨 다니시던 베다니 촌은 감람산 남쪽 종턱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또 예루살렘에서 가실 때마다 반드시 이산을 넘어 다녔습니다.

최후 만찬을 접수하시고 찬미하며 가신 곳도 이 산이며,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피와 땀을 흘리며 감람산적 기도를 하신 겿세마네 동산도 이 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잡히신 산입니다. 이처럼 감람산은 예수께서 있어서는 고난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람산은 이러한 고난과 절망의 산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산이 곧 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은 소망의 산이요, 승리의 산입니다. 고난과 한숨과 눈물이 지나면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최후 승리와 영화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외에도 우리 그리스도교와 관계있는 많은 산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 와서는 갈보리산은 우리 인생이 두고두고 생각하고 잊을 수 없는 사랑과 대속의 산, 십자가의 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산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때때로 산을 찾아가 하나님과 만나 기도합니다.

아직도 산에 올라가서 주님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면,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산에 가서 옆드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웅장한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북방 산과 들에 내린 이슬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땅을 적셔서 비옥한 땅을 만듭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신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단비를 받는(성령체험을 한) 신자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drjho@hotmail.com

산에 오르면 사람들의 마음은 명쾌해지고 넓어집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됩니다. 산들은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나 엘리사도 그리고 예수님도 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산은 때때로 신앙생활 하는 크리스천의 기도 제단이기도 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몇 개의 산을 통해서 선조들의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은혜받고자 합니다.

1. 에덴동산

에덴동산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살던 낙원입니다. 에덴동산은 생명 나무 열매가 일 년 내내 끊임없이 맺는 곳입니다. 어떤 들짐승과 산짐승도 사람을 해하지 않고 사람을 따르던 곳입니다. 거기 사람들을 괴롭히는 식물도 곤충도 없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 뵈고 교통할 수 있었던 인류의 낙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그 아름다운, 그리고 평화로웠던 동산에서 우리 시조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 잃었던 낙원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거기는 밤도 없고, 죄도 없고 평화롭고 성부, 성자, 성령께만 경배하고 섬기는 동산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찾아갈 분향입니다. 분향 찾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께 내 모든 것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2. 모리아 산

우리는 모리아 산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준된 산이요, 여호와 이레의 산입니다.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와의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대하 3:1)

그러므로 이 산은 유대인의 하나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

심 산을 하나님 종교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리스 산은 축복의 산으로 애발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주전 400년에 이 그리스 산에 성전을 지어 예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산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거룩한 신이라고 믿는 무리 중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곳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곳도 그리스 산이라고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

다. 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를 악한 여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멀리 40일 동안이나 걸어서 도망해서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러 거기 있는 굴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시내 산은 이처럼 쫓기는 민중, 유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계시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

“산과 신앙생활”

시편 121:1-8

시다가 수가 성에 가셔서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이 우물은 그리스 산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그리스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만이 예배할 곳이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는 참으로 예배할 곳은 그리스 산도 말고 모리아 산도 말고 하나님께는 신령과 진실로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이 귀한 것이 아니고 모리아 산 보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전적 봉헌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참되고, 인색함이 없고, 참된 희생과 전적 신뢰심을 가진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모리아 산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 순종, 절대 신뢰, 절대 희생, 절대 봉헌을 가지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명하셔서 모리아 산에 예배할 성전을 짓게 하신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시내 산(호렘 산)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율법의 산입니다. 모세의 산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에 이 하나님의 산 호렘에서 모세는

나 시내 광야에 와서 장막을 치고 머물 때 모세는 호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백성이 서약했다고 회보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백성들을 깨우친 후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데 대한 지시를 받았습

니다. 시내 산에서 40일간 머물러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 주신 십계명 돌판 두 개를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40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론의 지도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참지 못하고 돌판을 깨뜨리고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했고 다시 시내 산에 올라가서 다시 40일간 있으면서 다른 석판의 십계명을 받아서 하산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백향목의 산, 레바논과 푸르고 찬창한 갈멜 산 그리고 들장미 아름답게 피는 사론의 언덕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지대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푸른 언덕을 좋아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 50:19)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갈멜산의 수목이 마르며 풀이 마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으로 알았습니다. 사실 푸른 산과 푸른 숲은 번영하는 나라의 상징입니다. 엘리야는 이 축복의 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참 신 여호와를 증거 하기 위해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투쟁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

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을 받으셨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의 제물과 근방의 물까지 훑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거 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때때로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

장 신비로운 산상 광경이 있습니다. 이 산이 곧 헬몬 산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헬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9 제자는 산 아래 있었습니다. 이 헬몬 산은 레바논 산줄기에 있는 높은 봉우리입니다. 헬몬 산이라는 항상 푸른 언덕을 좋아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 50:19)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때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이 들려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땅에 엎드렸다 일어났을 때는 예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헬몬 산은 변화의 산입니다. 신자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타협은 NO!!! 캘리포니아 공화당(CRP) 정강에 있는
"결혼의 정의, 생명의 존엄성" 을 지속적으로 지키라고 청원하는 서명운동

긴급하고 중요한 2가지 서명운동은 첫째,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의원들 중 몇몇의 RINO 등이 현재 California Republican Party Platform (캘리포니아 공화당 정강)에 적혀있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성경적 결혼관" 과 "성경적 생명관"의 정의를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 공화당 정강에 있는 "성경적 결혼관과 성경적 생명관"을 오바마 전대통령 때 바뀌어진 민주당 정강 (Democrat Party Platform)에 적힌 "Marriage Equality, Gender Equality" 그리고 생명존중이 아닌, "선택"으로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서명운동을 펼칩니다. 꼭 동참해주세요. TVNEXT.org 에 가시면 간단한 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CITZENGO 편지 내용 요점 몇가지:

미국 독립선언서의 한 구절을 빌리자면, 우리는 "Laws of Nature and of Nature's God- 자연의 법칙과 신의 본성"에 포함되었으며, 우주의 질서에는 "Self-Evident Truths-자명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인간의 본성,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갑자기 캘리포니아 헌법까지도 바꾸려는건가?

뒷배경: 2008년 캘리포니아에서는 Prop.8 - 성경적 결혼의 정의를 지키는 Proposition 8이 나왔었습니다. Prop.8 은 우리 단체 TVNEXT (Traditional Biblic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이름을 탄생시킨 것 발의안이며, 그 당시 캘리포니아 한 인교회들, 중국 교회들에게 급히 알리고 함께 서명운동을 펼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Prop. 8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대통령이 된 버락 후세인 오바마의 강력한 정체성 정치혁명(Identity Politics & Revolution) 이 Political Correctness(PC)와 함께 친동성애 정책을 확립시켰고, 이제는 현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친트랜스젠더(Pro-Transgender) 정책들을 통하여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친동성애/친트랜스젠더 주로 알려지고 그와 함께 수많은 아픈 변화들을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캘리포니아 헌법'에는 Prop. 8 통과 이후 아무도 건드리면 안되는 마지막 남은 성경적 결혼의 정의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세력들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남은 마지막 한 문장까지도 완전히 역사 속에서 Cancel 하려는 것입니다.

ACA 5 발의자들: 동성애자 Evan Low 하원의원(민주당-쿠퍼티노)이 발의하고, 소아성애자도 존중하고 정상화시키는 발의안들을 내놓은 Scott Wiener 상원의원(민주당-S.F)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이미 6월에는 하원에서, 7월에는 상원에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두가지 서명운동: 미전역적으로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CITIZEN GO

청원서 서명: REPUBLICAN DECLARATION OF OUR JUDEO-CHRISTIAN FOUNDATION - 공화당 정강에 있는 성경적 결혼의 정의와 생명존엄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내라는 청원서 - Tvnex.org 에 가시면 서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이 수년간 계속 바꾸고자 추진해오던 캘리포니아 헌법마저 개정하고자 ACA 5라는 발의안을 제정했습니다.

"Constitution-헌법"은 마치 교회 헌법의 신앙고백, 사도신경과 같은 Faith Statement 와 같은 매우 중요한 "기초"이기에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ACA 5란 무엇인가?

California Assembly Constitutional Amendment 5 - 캘리포니아 주의회 헌법개정 5 Bill Title: Marriage equality(결혼 평등). A resolution to propose to 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by repealing and adding Section 7.5 of Article I thereof, relating to rights.

한마디로, "결혼 평등"입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 때 바뀌어진 민주당 정강 (Democrat Party Platform)에 적힌 "결혼평등, 젠더평등"으로 캘리포니아 헌법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목회자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크리스천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할 때, 더 이상 성경적 가치관을 보호할 법적, 헌법적 기반이 캘리포니아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이제는 공화당에서 드러난 RINO들이, 민주당의 소원대로 캘리포니아 헌법에 지금까지 기록되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누가 보내온 글에 어느 목사가 "주의 종들의 안식년은 불법이다 구약성경이 말하는 땅의 안식년을 목사나 선교사들이 도용하고 있다" 하는데 목사님들이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가지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목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에나하임에서 Paul kang

안식년 제도

A: 결론적으로 선교사는 가능하나 목사는 성경이나 총회 헌법에도 안식년의 근거는 없습니다. 안식년을 주장하는 목사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막 6:31절에 쉬를 명하셨고 바울과 바나바도 몇 년 선교하고 쉬었다 (행 14:26-28)는 것을 주장합니다. 바울의 선교사역을 추적해 보면 제1차 선교여행을 주후 46-47년 소아시아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약1,400마일을 다니면서 2-4년간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총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도 하고 교인들을 만나 훈련도 시켰습니다. 약 1년 후에 주후 48-51년동안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났고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그리스)에서 약 2,800마일을 오가며 약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안디옥에서 얼마간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이 때는 한 두 달 정도로 봅니다. 그 후 바로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과 브루기아 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 약 4-5년이 걸린 듯합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볼 때 바울 선교사는 선교 한 기간이 지나면 파송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쉬도 가지고 다음 선교를 준비한 듯합니다. 이로 볼 때 외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는 본국에서 가지는 안식년 제도는 나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함동신학교의 김영재 교수는 목회자의 안식년 제도라는 글에서 "안식년 제도는 선교사를 관례로 삼은 선교교회였고 대학이 대학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위해 안식년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목회자도 선교사나 교수의 직능과 비슷한 점이 있어 도입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에게는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안식년에 고국에 돌아와서 파송한 교회도 순방하고 선교 보고도 하며 위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토착교회에도 선교사가 없는 동안에 토착교회 봉사자들이 더욱 수고함으로 유익이 됨을 여러가지 면에서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사님에게는 성경적 근거도 없으면서 안식년제도는 1970년 이후의 대형교회의 산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안식년을 가지는 목사는 전체 목회자의 2-3%도 안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안식년 제도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목회자가 안식년을 가져 1년을 쉬게 되면 목회자는 좋을지 몰라도 교회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대형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많아 가능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이민교회와 경우 목사가 최우위를 비어두고 교회가 공백이 생기는데 더구나 1년을 교회를 비우게 되면 교인들이 줄어들게 되고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경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안식일은 사람에게 존재하나 사람에게 안식년은 친구 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사람처럼 하루 단위로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보전을 위해서 6년 경작하고 1년을 휴경하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토지의 휴경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그 발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레 25:4). "너는 여섯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물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출 23:10-11). 그러므로 목회자는 일하다가 한꺼번에 1년을 쉬는 안식년보다 해마다 몇 주간의 충분한 휴가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영양분/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 Tel:(773)821112, estross@yahoo.com 6850 W.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3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0288,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디베: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찬양: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l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
센터빌안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581-9235 www.koreanc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4: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42-0288, Fax:(21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254)3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 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636-6675, www.laconcn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귀여운 어른되기

“이모, 이모도 보바티 좋아 하세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보바티 제일 맛있게 하는 곳을 알아요.” “그래? 이모는 보바티보다 커피를 더 좋아하는데, 지아가 알고 있는 그 최고 보바티 가게는 어디야? 이모도 마시고 싶어지네.” “네! 우리가 바로 옆집이예요. 오늘 제가 가게에 조용히 잘 있으면 엄마가 집에 갈 때 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갈까? 이모가 사줄게.” “안돼요! 안돼! 엄마한테 저 혼나요.” “아니야. 엄마랑 이모랑 친구고 이모도 지아덕

분에 제일 맛있는 보바티 먹고 싶어. 우리 빨리 가져~” 하며 아이 손을 잡고 함께 옆 가게로 향한다. 아이가 행복할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이제 이모랑 나는 친구예요!”라고 말한다.. 토요일 예약해 둔 단골 미용실에 편을 하러 갔더니 딸이 함께 나와 있었다. 오랫동안 온 가족이 다니는 곳이라서 원장부부와 아이들까지도 서로 잘 아는 사이가 된 것이다. 영업시간에 아이들이 함께 매장에 있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언니가 생일 파티에 가서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한 초등학교 4학년 막내가 매장에 있다가, 내가 가게로 들어서자 반갑게 인사를 하며 재잘재잘 보바티 얘기를 들려 준 것이다. 당연히 엄마 원장님은 괜찮다고 사주지 말라고 손사레 치며 말렸지만, 그렇게 즐거운 보바티 시간을 아이와 함께 했고 정말로 최고로 맛있는 보바티였다. 가게에 들어와 앉아있는 나를 보고 반가워 조르르 달려와 말을 거는 사랑스런 모습은 나의 어린시절을 생각나게 했다. 부모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오셔서 인사를 드리면 으레 ‘잘 지냈니?’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용돈을 주시고는 했다. 용돈을 받기 전에 나도 항상 ‘아니예요.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고, 어른들은 ‘괜찮으니 받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셨다.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이웃, 친구의 자녀에게 작은 용돈을 귀엽게 나눌 수 있는 어른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몽글몽글해 졌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개인의 능력을 갖추어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이웃과 함께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 모두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 목회자인 (德 큰 덕 必 반드시 필 有 있을 유 隣 이웃 린) 이란 사자성이 있다. 이 사자성의 의미는 사람이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때 배운 사자성이었는데, 이 사자성을 가르쳐주신 한문과목 선생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학생이지만,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도움을 주고 나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하시며 가르쳐주신 기억이 난다. 크리스천인 나는 이 한자성이 성경말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비슷하다고 수업을 들으며 생

각했고, 그래서 더 기억하는 사자성이었다. 인간의 속성은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끊임없이 채우려한다. 남들에게 나누고 배부는 행위를 손해라 여기고 나에게 무익하다 생각한다.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너그럽고 넘친다는 생각을 하며 살지 못한다. 하지만, 나눔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이웃과 친구가 생긴다. 비싸고 큰 것을 나눌 때 이웃이 되는게 아니다, 내가 가진 마음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 또한 최고의 보바티 한잔으로 귀여운 소녀의 작은 어른친구가 되는 기쁨을 얻는 행복한 하루를 얻었다. songjeo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나토, 내년 초 '냉전 후 최대 규모' 군사훈련 "러 침공 대비"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나토)가 내년 2~3월 병력 4만여 명을 투입해 러시아 침공에 대비한 대대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보도했다.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유럽 서방국가들의 대(對)러시아 안보 체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FT는 나토 관리들을 인용해 내년 '스테드팩스트 디펜더'(Steadfast Defender·확고한 방어자) 훈련이 독일과 폴란드, 발트해 일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지역은 러시아와 국경을 두거나, 상대적으로 가까운 유럽의 동쪽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공중전 임무 500~700개와 함정 50여척, 병력 4만1000명이 투입될 계획이다. 훈련에는 나토 회원국 31개국 뿐 아니라 아직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나토 가입 비준을 받지 못한 스웨덴까지 모두 32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문은 "이같은 규모는 냉전 이후 최대"라고 전했다.

훈련은 러시아 침공시 나토가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러시아에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관리들은 설명했다. 나토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가상의 동유럽 연합군 '오카수스'(Occasus)를 설정해 잠재적 작전 모델을 세워놓고 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훈련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가 위기 대응 위주에서 '전쟁 수행' 동맹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리 정보를 이용해 보다 현실적인 군사 시나리오를 세운다는 점에서도 나토 사상 최초"라고 전했다.

나토는 이와는 별도로 국경 밖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훈련도 실시할 방침이다.

나토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새로운 유럽 방어 전략을 추진해왔다. 특히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고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이 벨라루스에 주둔하자,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나토가 동부전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앞서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고도의 준비 태세를 갖춘 병력을 4만명에서 30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4만명 규모의 나토 대응군을 거의 8배로

증가시켜 러시아의 침공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지역 방위 계획과 '연합신속대응군' 창설에 합의하기도 했다. 독일도 지난 6월 벨라루스 접경국인 리투아니아에 4000명의 병력을 영구 주둔시키겠다고 밝혔다.

리비아, 폭풍우로 '초토화' 2000명 사망·수천명 실종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북부가 갑작스런 폭풍우로 초토화 상태다. 댐이 파괴돼 최소 2000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물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리비아 동부를 장악하고 있는 리비아국민군(LNA) 아흐메드 미스마리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항구도시 데르나에서 인군 댐이 무너져 지역 전체가 물에 휩쓸렸다. 최소 2000명이 사망하고 5000~6000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중해에서 발원한 태풍 '다니엘'은 지난주 그리스를 강타한 뒤 리비아 동부 해안가에 상륙해 데르나 인군 댐 두 곳을 파괴했다. 홍수로 데르나시의 건물과 도로가 파괴됐으며 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벵가지의 해안가 주거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목격자들은 홍수 발생 후 수위가 3m에 달했다고 증언했다. 데르나시 주민인 살레 알 오바 이디는 "자다가 일어나보니 집에 물이 차 있었다"며 "가족과 함께 가까스로 피신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전기와 통신 등이 모두 끊긴 상태다. 라스 라누프, 즈웨티나, 브레가, 에스 시드라 등 리비아의 주요 석유항 4곳도 전날 저녁부터 사흘간 폐쇄됐다.

벵가지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150명이 숨졌으며 사망자 수가 250명까지 늘 수 있다고 카이스 파케리 적신원사 대표가 밝혔다. 베이다에서는 최소 46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으며 북동부의 해안 마을 수사에서도 7명이 사망했다. 샤하트와 오마르 무크타르 등의 마을에서도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비아 동부 의회가 지명한 오사마 하마드 총리는 데르나시를 비롯해 피해 지역 전체를 재해

지역으로 지정하고 3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서부 트리폴리 통합정부(GNU)의 압둘하미드 드베이바 총리도 동부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LNA와 서부의 통합정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안보 위기 동북아 확장 美 "국제 왕따 북에 지원 구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기 거래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발 안보 위기를 동북아로까지 확장했다. 특히 미국에 대항하는 북·중·러 군사 연대를 강화해 서방 중심의 다자 체제 한계를 노출하려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장기화를 유도해 서방 동맹의 균열을 조장하고, 안보 위기 지형을 확대해 미국의 역지력을 분산시키려 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한 국민일보 질의에 "공개적으로 경고했듯 북·러 간 무기(거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을 '국제적 왕따'라고 지칭하며 "러시아가 지원을 구걸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어떤 무기 이전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부대표는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상당한 양(significant quantity)이자 여러 종류의 탄약을 지원받는 무기거래 최종 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부대표는 두 정상 간 거래에 북한이 러시아 방위산업에 사용될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김 위원장이 역대 두 파트너(중·러)에 의존하는 정도를 보여준다"며 "이는 한·미 양국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통곡 소리만 가득 절망의 모로코, 생존자들 2차 시련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모로코 주민들은 노숙하며 지진 피해로 인한 고통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가 컸던 서남부 산악지대는 접근 자체가 어려워 생존자 구조는 물론 구호물품 수급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여진의 공포 속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3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적인 지진 피해에 이어 '2차' 시련을 겪고 있다. 모로코 국영 TV는 11일 내무부 집계 결과 이날 오전 10시 현재 사망자가 2497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최소 2476명이라고 보도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30만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지진으로 집과 가족을 잃은 주민들은 절망하며 통곡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마라케시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몰라이 브라힘 산간마을 주민들은 맨손으로 잔해 속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타페그라데 산간마을은 완전히 황폐화된 주민 200명 중 9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사흘째 길거리에서 노숙하거나 텐트에서 밤을 지새우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상점이 파손되거나 문을 닫으면서 식량과 물품을 구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몰라이 브라힘 주민들은 여진 공포에 텐트조차 세우지 못한 채 길거리나 인근 축구장에서 잠을 잤다고 CNN은 전했다. 마을 주민 살라 양수(28)는 "미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생존자 대다수가 절실한 필요한 도움의 손길조차 오지 않자 절망감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지진으로 굴러내려온 거대한 바위가 도로를 막자 일부 구조대원은 장비 없이 생존자 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한 산간마을은 이날 오후 처음으로 구호품이 전달됐을 정도였다.

이날 오후 규모 3.9가량의 여진까지 발생하면서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에 취약한 진흙 벽돌과 목재 등으로 지어진 집이 많은 데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지난 8일 발생한 지진보다 여진에 의해 집과 건물이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모로코 정부 당국이 구호작업에 착수했지만 외딴 산악지대 등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에는 구호품이나 구조장비를 운반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무함마드 5세 연대재단은 '알하우즈 지역'에서 식량, 의료지원, 긴급주택, 담요 등 1만5000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모로코 정부는 외국의 구조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 등 많은 국가에서 원조 의사를 표명했으나 모로코 정부는 지금까지 영국 스페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 지원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현재 스페인이 생존자들의 수색과 구조를 돕기 위해 구조대원 86명과 수색견 8마리를 모로코에 파견했으며, 영국과 카타르도 수색구조팀을 모로코로 보냈다.

상황이 이런데도 모로코 정부는 외국의 구조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 등 많은 국가에서 원조 의사를 표명했으나 모로코 정부는 지금까지 영국 스페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 지원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현재 스페인이 생존자들의 수색과 구조를 돕기 위해 구조대원 86명과 수색견 8마리를 모로코에 파견했으며, 영국과 카타르도 수색구조팀을 모로코로 보냈다.

지친 목회자를 위한 소망..

(2면에서 계속) 저자는 목회 사역에 충실하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님을 상기시킨다. 목사라면 누구나 드는 유혹이 있다.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또 잘 목양한다면 교인들이 다 나를 좋아할 것이고 결코 회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저자는 "목회자에게 고통은 사역의 당연한 현

실"(35)이라고 주장한다. 이 지적인 교회 지도자들도 하여금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목사들이여,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목회자가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사역을 악용할 수 있는지도 보여 준다. "나는 단지 신실하고 싶을 뿐입니다"라는 영적인 언어조차도 개인적인 유산을 남기려는 죄악된 욕망의 은폐 수단일 수 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

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여라도 그 영광의 일부에 내가 동참할 때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은 격려하기보다는 숲속으로 밀어 넣는 압박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처럼, 저자는 독자들을 향한 비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복음이 주는 안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안도

같은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만 온다. 저자는 쉬지 않고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만 오는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목회자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의 사역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현실을 저자는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하여금 언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정체성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

로 인해 목회자들은 더 이상 실패를 축소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저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목회자의 회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그를 정죄하는 증언자가 그를 위한 치료법도 함께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127). 목회자들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갈 때, 그들은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님이기 때문이다. '목사들이여,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목회자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되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도록 격려한다. 이 책은 목회자들에게 하나의 축복이다. 그렇기에 더 널리 읽힐 가치가 있다. by Ryan Ross.TGC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76. 이규연 (1884-1962)

이규연은 1884년 9월 15일에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달 18일에 태어났다고도 한다. 그는 한국에서 구세군 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4년 7월 8일에 몽고리아 선편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20세의 기혼 남성이었던 이규연이 이규연인 것 같다. 이규연은 하와이에 오기 직전에 한국에서 문화군 헬메리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그가 이규연 외에도 이규현으로도 쓰여졌다.

이규연은 영어로 Kyu Yun Yi로 표기했고, 영어 이름으로 해리(Harry)를 사용했다. 하와이에 도착한 그는 사랑수수밭에서 노동하였다.

호놀룰루 한인 구세군 영문

1910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 응한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인은 4,500여 명이고, 하와이 총인구의 2.4%였다. 이는 11.3%의 중국인에 비해 적었고, 41.5%의 일본인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였다.

이규연은 전경준 등과 함께 하와이 구세군 정령인 브란취 카스 부인을 찾았다. 카스부인은 1883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였는데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사역하였고, 인도에서 단기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사역한 적이 있었다.

카스 부인의 후원으로 1912년 10월 15일에 하와이에서 가장 큰 도시인 호놀룰루에서 한인 구세군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다. 그해 12월 10일에 호놀룰루의 구꾸이 스트리트에 월세로 건물을 임대하여 한인 구세군 영문을 세웠다. 교인이 적을 때는 15명이었고, 교인이 많을 때는 40명이었다.

이규연은 사관학교 출신의 사관이 아니라 별칭 사관으로 보인다. 그해 구꾸이 스트리트에서 빈야드 스트리트 가까이 있는 리버 스트리트로 구세군 한인 영문을 이동했다. 그해 12월 크리스마스이브에 호놀룰루 구세군 한인 영문이 크리스마스추리 축제를

개최하였다.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한인 소년과 소녀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사회의 큰 행사가 되었다.

이규연 등은 전도하는 한편 성령 학교를 설치하였다. 이 성령 학교에서 고아를 양육하였고, 어린이를 위한 국어 교육을 힘썼다. 이 성령 학교는 1937년 2월에 재정적으로 곤란하여 문을 닫았다.

창립 이듬해인 1913년 10월에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창립기념절을 개최했다. 그런데 5일이라고 적혀 있어 설립 날짜가 15일이 아니고 5일인지 모르겠다.

이규연은 29세가 되던 1913년 7월에 16세 된 송마르타(Martha Shong)와 결혼했다. 송마르타는 그해 한국에서 호놀룰루로 이동한 사진 신부로 보인다. 송마르타는 1897년 9월 7일에 한국에서 어머니 김 씨에게서 태어났다. 그런데 1898년 10월 15일에 태어났다고도 한다. 송마르타는 한국에서 여학교를 나온 인테리였다. 결혼 후 송마르타는 남편의 성을 따라 이마르타(Martha Yi)로 개명했다.

1918년 5월 5일에 첫째 딸 이바가 호놀룰루에서 태어났고, 2년 뒤인 1920년에 아들 동진이 태어났다. 아들 동진이 태어나던 때 이규연은 적자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는데 그는 일하면서 구세군 영문을 섬긴 '텐트 메이커'였다.

1919년 10월 25일 자 국민보는 '구세군 교회는 민학사를 환영'이라는 다음의 기사를 냈다. "본향 한인 구세군 교회 형제자매들이 학사 민찬호 씨를 위하여 본 월 23일 오후 7시 반

경에 베리타니아 거리에 있는 해 예 배당 안에 환영회를 열고 장관 이규현 씨가 주석하여 상대한 환영식을 거행하였는데 남녀 학생을 아울러 수백 명 동포가 출석하였으며, 민학사 급 승용환, 윤계상, 안원규, 이내수 씨가 환영에 대한 연설을 진술하여 일반 부모 형제 자매로 하여금 융화한 덕의를 고취하였더라."

이듬해 3월에 구세군 교회 하사관이었던 김천일이 가와이섬의 리후에의 아카쿠이우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로브팜 농장 노동주선인으로 활동했다. 그해 8월에 와일루아 지방에 거주하던 구세군 교회 전도사인 박호병의 부인 김숙안이 별세하여 구세군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 큰 슬픔을 당했다. 이규연은 보조급 3달러를 내서 그 가정을 위로했다.

하와이 일본 총영사관 1922년에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 구세군 지도자 명단에 이규연 이외에도 김관여, 한길수 그리고 조경천이 있었다. 이 이규현이 이규연으로 보인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이규연의 한자 표기는 李奎鉉이었다.

1923년 3월에 셋째 딸 에스더가 태어났고, 1926년 7월에 막내딸 마거릿이 태어났다.

한국 사역

1926년에 구세군 분규 사건이 발생한 후 배일수 사령관에 이어 두영서 잠장이 군국사령관으로 승계되었고, 이후 사관들의 임지 이동이 이어졌다. 그해 6월에 경성 제1영문(서울 정동 구세군 영문)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제16기 사관 학생 입관 임명식이 진행되었고, 그들은 임지로 파송되었다. 2개월 후인 8월에 해외에서 사관의 총원이 있었는데 독일계 스위스인이었던 에나 해칠러[하길관] 정위와 프랑스 출신의 M. 사르미용[차미령] 정위 그리고 하와이에서 사역하던 이규연 부부도 있었다. 이때 그들을 '부관'으로 소개했다. 이 부관이 위관 사관인 '부위'가 아니냐 한다.

이규연 부부는 위의 두 외국인 사관보다 한 달 반 정도 빠른 그해 7월 30일에 세 자녀와 함께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해 8월 19일에 서기 장관이 인도하여 서울 정동에 있는 경성 제1영문에서 하와이에서 전근 온 이규연 부부 동부인을 위한 환영회가 있었다. 오랫동안 떠났던 한국에서 다시 사역하게 되어 목회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을 제물포 영문에 임명하였고, 이들의 목회가 크게 성공하기를 기대하였다. 제물포 영문은 1924년에 개척하였다.

그 후 이규연은 1931년 4월에 서울 북악현동에 있는 경성 제2영문 곧 오늘날의 구세군 아현교회로 부임하였

다. 그는 제16대 임석길/김지순 참위 부부의 뒤를 이어 제17대 사관으로 부임하여 서양 선교사의 지도로 본 영문을 담임하였다. 당시 그는 참위였다. 아현 교회는 1916년 7월에 개척되었다. 그가 부임하기 2년 전인 1929년 5월 10일에 본 영문에서 구세군 육아홈을 신축하여 낙성식을 가졌다.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트 대장의 탄생 100년 기념식과 함께 육아홈 창립 10주년 기념식도 함께 하였다. 부모 없는 고아를 양육하면서 보통 교육과 직업 기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인격을 세워 창립 이래로 100여 명을 배출하였고, 1929년에 77명이 소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직조 재화 목공 등의 기술을 배웠다. 1933년 6월 4일 주일에 박준섭 사령관이 방문하여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기념 촬영을 하였는데 이 사진에서 앞줄 앉은 좌석의 맨우측과 맨좌측이 이규연 사관 동부인이고, 가운데가 사령관 박준섭 동부인이고, 세 번째 줄 좌측이 1대 담임사관 올슨 정위, 그 줄 오른쪽 끝이 12대 담임사관 사도일 정위, 그리고 맨 뒷줄 우측에서 두 번째가 1954년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된 부람웰 실베스터(설부열)이다. 이규연은 18대 이종봉 정위가 부임하던 1933년 6월 말까지 2년간 재직했고, 그의 뒤를 이어 제19대 노상섭 사관이 단신으로 부임했다.

이규연 부부는 오늘날의 구세군 대구제일교회인 대구 제1영문, 경성 제1영문 그리고 해주 구세군 영문을 거쳐 서울에 있는 본영 상업부에 부임했다. 그는 본영 상업부에서 도서 외에 사관복, 예전, 문서, 전도지 등 관리용품을 제작하고 판매하였다. 그 후 경성 부지방관을 역임하였고, 구세군 대한 본영 구제부에서 사회 선교에 관한 사역을 펼쳤다. 그리고 난 후 1941년 7월에 이규연이 경성 제2영문 제25대 담임으로 다시 부임하였지만 2개월간 재직했고, 이어서 경상북도에 있는 의성 영문과 오늘날의 원당 영문교회인 원당 영문을 담임하였다.

구세단 개편 3년 만인 1944년 11월 25일 밤에 아현 영문에서 장로교 대표 채필근 목사, 감리교 대표 정춘수 목사, 구세단 대표 사카모토 단장의 집례로 교사 안수식이 있었고, 12월 2일 밤에 영문에서 구세단 교사들이 별도로 모여서 안수식이 있었다. '교사'는 목사야 사관의 다른 호칭이었는데 일본에서 목사를 두고 사용하는 '선생'과 비슷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날 33명이 정교사로 안수받았는데 이중 이규연이 포함되었으나 이마르타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다.

40년 이상 구세군 영문을 사역한 이규연은 동료 사관으로부터 호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코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코트를 자주 불었다고 한



다. 무엇보다도 그는 미국식 구세군을 한국에 심는 데 공헌했지만, 구세단을 개편할 때 단장 배척 문서에서 명하여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은퇴

이규연 부부는 1949년 4월 8일에 퇴직했다. 퇴직할 당시 이규연과 이마르타는 참령이었다. 구세군의 목회자를 사관이라고 하는데 사관은 구세군사관학교를 나와야 한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임관되면 부위가 되고, 임관 후 5년이 지나면 정위로 진급하게 되는데 이 부위와 정위를 위관 사관이라고 한다. 정위 진급 후 15년이 지나면 참령으로 진급하는데 사관학교 임관 후 20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런 계급으로 참령을 영관 사관이라고 한다.

이규연 부부는 1950년 6.25사변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 1950년 5월 12일에 요코하마에서 'W.H. 골든 장군'이라고 이름 지어진 군함을 타고 그달 18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들은 호놀룰루에서 가까운 카이루아에서 거주했다.

1955년 10월에 이규연은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잠시 방문하여 국가적인 일정을 마친 후 20여년간 사역하였던 구세군 교회를 방문하였을 것이다. 이규연은 하와이 호놀룰루 인근 카이루아에서 거주하다가 1962년 12월 28일에 세인트 프란시스 병원에서 향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호놀룰루 인근의 다이아몬드 헤드 기념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사람을 섬겼다'라고 묘비에 새겼다. 남편의 소천 이후 18년이 되던 1980년 12월 14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마르타는 향년 8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영성)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Tel: (323) 9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수-일 할로: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 4부예배: 오후 1:20 영아(강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c.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26)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수-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behel@kbc.org / www.kb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사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213) 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213) 388-9327 / www.wmcsa.com / worldmissioncenter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p-Ri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6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41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오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8, Ce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고령화 노인 여성 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 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6:00(토)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 오후 7:30 안락교회: 오전 9:15, 11:30 Tel: (714) 446-6202,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성령강화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Tel: (213) 749-4500, www.g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 M 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일 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히슬스망교회 담임목사: 김필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어려진 아이들에게"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순종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성교육에 순종이라니! 말이 되나요?”

똑똑한 학부모님의 당찬 질문이 들리는 듯합니다. 21세기는 차치하고라도 ‘요즘 세상에’ 성교육과 순종이라니, 너무 안 어울리는 조합 같지요?

필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좋은나무성품학교 순종 교육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순종의 핵심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성경적 성교육과 관통합니다.

성(性)에 대한 가르침은, 마땅히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받아야 합니다. 포르노나 음란물 또는 비속한 수준의 또래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포괄적 성교육(CSE)을 이수한 교사에게는 더욱더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는 말씀으로 부모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보호를 맡기셨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성교육은 가정에서 가장 친밀하게 자녀에게 흘러보내야 할 귀중한 세계관입니다.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CSE)에서는 동의(합의)를 가르칩니다. 5~8세에는 ‘자기 몸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질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를 표현하도록 가르쳐서 불편한 느낌으로 만지는 대상에게 “안돼.”, “저리 가.”라고 말로 표현하게 하는 전형적인 유아 성교육입니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12~15세는 누구나 프라이버시와 온전한 신체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면서, 핵심 내용으로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성적으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가 있으며,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은 의문이 생깁니다. 12~15세 자녀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안전한 교육일까요? 보통의 어른에게도 성숙한 분별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다음 세대에 대해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던져주듯 인내할지 말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게 하는 것을 교육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 자기 성적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게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단순한 대화법을 배우는 듯 보이지만, 암묵적으로 이 시기의 성관계를 활짝 열고 장려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과연 누가 아이들과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쓸쓸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비고츠키(Lev Semenovich Vygotsky, 1896~1934)의 비계설정(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어린이가 전인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반드시 행복한 삶을 가르치는 성숙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마치 건축할 때 비계(scaffolding)를 설치해서 건물을 끝까지 멋지고 안전하게 완성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교육에는 부모의 절대적인 역할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性)을 지키려는 노력을 배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와 성(性)을 주제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 교육은 이런 부모의 친밀한 권위와 가르침을 빼앗아, 한창 배우며 성장해야 할 자녀에게 권리만 주고 의무만 사라진 ‘성적 자기 결정권’을 덩서 안겨주기 때문에 혼란의 여지가 큼니다.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 순종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빛나는 인생을 건축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에서 순종으로 보호받으며 성숙해지는 좋은 성품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는 사람들의 지시와 교훈을 따라 순종하는 성품이야말로 아름다운 성(性)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우게 합니다.”

다음 세대 성품교육과 좋아성(BSE)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시니어 목회를 위한 문/상담은 201-693-1976, goodtreeusa@gmail.com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명상기도의 형식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간단한 질문

제 4장 기도의 본질-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주해와 방어 (1)

기도는 믿음과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과 기쁨과 다른 은혜들을 말로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찬미하는 선물이나 능력으로서, 영적인 기능(faculty)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이런 선물이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며, 그 결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1.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성령의 사역에서 첫째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황에 맞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곳에서는 기도의 본질이나 존재 자체가 파괴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라는 말씀으로 이를 확증하고 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악하고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보다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는 어떤 사람도 자신이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사도의 견해를 따라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 수 있다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기도해야 할 것을 찾는 데 신중하지 못하며, 이는 기독교에서 성령의 사역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비록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는 모를 수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사전에 가르쳐 주는 만들

어진 기도문들이 이런 결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서 그들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성령과 그의 도우심을 배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어느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기도의 내용을 적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의존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할지 신뢰하지 말아야 할지의 문제이다.

성령의 주기도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가 요약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것과 그 기도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별개이다. 후자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온전한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없다. 임은 ‘마음에 가득한 것’부터 말하는 것이다(마 12:34).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세 가지 결점이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약속을 따라 역사하시는 간구의 영이신 성령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른다. 셋째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모른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기도해야 할 바대로 기도할 수 없다. 우리는 은혜의 영의 도우심과 후원이 없는 그것들을 결코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명백하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우리에게는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시적인 일들과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외적인 곤란과 압력, 어려움이 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놀랄

만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것들에 대해 알고 있고 해결되기를 자연스럽게 바라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언제 어떤 상태와 제약 아래서, 어떤 마음과 정신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에 대한 대부분의 기도를 ‘울부짖는다(howling)’고 하실 뿐, ‘마음으로 부르짖는다(crying)’고 하지는 않았다(호 7:14).

사실상 자연의 신에게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자연의 소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피는 복음적인 기도의 의무가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잘 놓친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일상적인 부족함을 기도의 내용으로 아는데는 우리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더 높은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림자처럼 보내는 이 험한 삶의 여정에서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전 6:12).

종종 신자들조차도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존재를 파괴할 수 있는 고통과 좌절과 부족을 겪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는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성령의 조명이 없어도 어느 정도 혹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혹은 최고의 목적이든 최상의 선을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지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

younsuklee@hotmail.com

Table with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뉴욕갯세마미교회, etc.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남세운교회)

행복을 창조하는 삶

교향시의 창시자로 불리는 헝가리의 작곡가인 프란츠 리스트가 독일의 어느 시골 마을을 여행하다가 그곳에 도착하니, 그 마을극장에서 음악회가 열

린다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회를 갖는 소녀 피아니스트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리스트는 아무 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전혀

낯선 이름이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 안내원은 리스트를 반갑게 맞이 하면서 "선생님께서 제자분의 연주회에 초대 받으신 거군요. 저희 호텔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유명한 음악가 리스트 선생이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연주회를 갖는 소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사실 그 소녀는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난감해진 그녀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리스트를 찾아가서 그를 꿰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먹여 살릴 수 없었던 그녀는 시골구석

을 돌아다니며 연주했지만 이름없는 소녀의 연주를 들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인 줄 알고 있었지만, 리스트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 선전하며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먹이자 리스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무 걱정 말아요. 소녀가 원한다면 이 시간부터 진짜 내 제자로 받아주겠소. 가족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제자를 둔다면 오히려 내가 자랑스러울 테니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내일 프로그램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거기에 스승인 리스트와 함께 연주할 것이라고 넣어주지 않겠소? 그리고 내일의 연주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함께 연습해 봅시다." 소녀는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

지 못한 채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하고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너그러운 분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 그 소녀는 리스트 선생님을 한없이 존경하는 눈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연주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리스트는 그 때를 회상하면서 생애 그 어떤 연주회보다 가장 행복한 연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덮어주고 이웃의 기쁨을 위할 때 거기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창조하는 삶입니다. 성경 로마서 15:1-2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

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찌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인이 더할수록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짐을 질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내적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어려운 때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복을 창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cyd777@hotmail.com

KWMC 제10차 한인선교대회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린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orean World Mission Council, 이하 KWMC)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 사무국장 이명철 목사는 지난 7일 한인타운 내 용수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4년 7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4일 동안 '예수, 구원의 그 이름'(행 4:12)이라는 주제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선교대회는 2년 마다 지역 교회 중심으로 열릴 것

KWMC 조용중 사무총장은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시카고 인근 위튼대학교에서 열렸고 4년마다 열려왔다"며 "지난 2016년 시카고지역을 떠나 처음으로 남가주 아주사피픽대학교에서 열렸으며 이번에 두 번째로 남가주에서 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했던 대회가 작년 버지니아에 있는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열렸으며 통상 4년마다 개최해 오던 대회를 앞으로 2년마다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열리게 됐다"며 "팬데믹의 위기를 벗어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하여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열리는 만큼 교회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미주한인교계에서의 선교사 파송 현황 파악 필요

또한 조 사무총장은 "미주한인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시작하지 36년 정도가 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정확한 선교사 파송



KWMC 조용중 사무총장(사진우측)과 이명철 사무국장

- △팬데믹 이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선교 운동 재 점화
- △남가주지역을 중심으로 미주한인교회 선교 활성화
- △선교전문영역 소개 및 네트워크 개발
- △선교사 후보생 발굴 목적

현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미 KWMA에서는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현황이 파악이 되었고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대회를 맞아 미주한인교계에서의 선교사 파송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각 교회에서 교단 및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요청한다. 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가운데 이미 선교지에서 귀국해 소천한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공로를 인정하고자 한다"며 "

각 교회에서나 교단, 선교단체에서 도와주셔서 대회 기간 중 선교사 유가족들을 초청해 공로를 인정하고 미주한인교회의 선교역사를 계속 이어가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교대회는 △팬데믹 이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선교 운동 재점화 △남가주지역을 중심으로 미주한인교회 선교 활성화 △선교전문영역 소개 및 네트워크 개발 △선교사 후보생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등록비는 1인당 300달러다. 이번 대회는 500여 명의

선교사, 200여 명의 MK, PK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체 참석인원은 1500명으로 제한된다. 선교사들과 일반성도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환으로 홈스테이를 적극 권장하는 만큼 교회에서 많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각 지역 돌며 설명회 갖고 선교대회 참석의 유익 알릴 것

KWMC 이명철 사무국장은 "이번 선교대회 참석 유익은 첫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며, 둘째, 교회가 협력 선교를 하게 되며, 셋째, 현장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넷째 선교전문영역별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이번 선교대회는 사전에 등록된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 정보가 등록되어 후원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사전에 선교사에 대해서 알고 초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WMC는 오는 21일(목) 오후 6시 인랜드교회(담임 안한 목사)에서 LA 동부지역 75개 한인 교회 담임목사, 선교담당목사, 선교부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명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당일 저녁 식사는 인랜드 교회에서 제공한다. 동부 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반인, 사우스베이 등 LA 주변 여섯 지역을 순회하면서 내년 6월까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213)605-2517 사무국장 이명철 목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센터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 시작

"교회 안에서 하던 사역을 밖으로 확장, 한인사회 필요 채울 것"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센터(소장 박창형 목사)가 최근 개원하고 LA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1일(월) 오전 11시 제이제이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박창형 소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타운 기독교 커뮤니티센터는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했던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후속기관"이라 소개하고 "이민법 서비스를 비롯하여 메디케어 등 소셜서비스, 이민법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며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박 소장은 "한인커뮤니티에서 진실 된 힘을 가진 곳은 교회이다. 사회를 밝히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분, 그리고 목사님들의 기도 등 영적지원과 지적지원 등이 풍부하다. 그 자원을 커뮤니티로 끌어내려고 한다"며 "그동안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던 사역을 교회 밖으로 확장시켜 한인사회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교회가 목소리 내면 시정부는 들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LA 한인타운인근 웨스트모어랜드와 8가에 있는 노인아파트는 LA 제일침례교회에서 지었고 놀만디와 윌셔블러버드에 있는 윌셔타운 아파스는 윌셔크리스천교회(현 오아시스교회)에서 시와 함께 만든 저소득층아파트"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를 한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회 회장)는 "한인사회 안에 좋은 단체가 있음을 알게 되어 참석하게 되었다"며 "영어가 부족한 한인들을 위해 시민권 시험을 잘 치룰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이민법 서비스를 비롯해 메디컬, 메디케어 등 정보 혜택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스티브강 KYCC대의협력위원장은 "한인타운 기독교커뮤니티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본 센터가 새롭게 출발하는 비전과 미션을 응원한다. 본 센터의 사역에 한인들도 함께 동참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창형 소장은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구성원은 이들을 모아 연합체를 만들려고 한다. LA 한인타운, 밸리지역, 그리고 세리토스 등 한인들 밀집지역에서 사역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섭외할 계획이며 2주 내로 구체적인 사역계획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213)739-7888, contact@ktelea.org로 하면된다 <박준호 기자>

바벨론이라는 대학을 이겨내는..

<1면에서 계속>

바로 그 이유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왕의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 선택했다(단 1:8). 왕이 제 공하는 교실은 공유했지만, 그들은 결코 왕의 식사를 공유하지 않았다.

후자의 행위는 그들을 같이 훈련받는 다른 현자들로부터 분리했다.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대답하고 즉각적인 선택은 그들을 하나로 묶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향하는 반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했다. 왕의 술을 피함으로 그들의 머리는 맑았고 언제라도 지성의 싸움에 돌입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대학생도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피해야 한다. 그렇다. 이 말은 다른 아니라 신입생 파티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불어서 가장 친밀한 사회적 접촉 지점(예를 들어 정기적인 식사)과 가장 뿌리 깊은 우정의 통로를 오로지 같은 신자들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통합을 포기하는 희생은 상처를 통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

가를 치렀다. 동료 신자들과 함께 하는 저항적 교제가 처음부터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한다.

2. 믿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나나와 미사엘, 아사라는 어떻게 왕의 맹렬한 진노를 감당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죽음의 굴로 당당히 발을 들일 수 있었을까? 그들의 강한 결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천 번의 평범한 식사가 말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식사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 학생은 용기 있는 생활 방식에 꼭 필요한 양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기적 식사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지역 교회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이름이 일상적으로 모독받는 현장이기도 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하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식사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투력을 쌓는 시간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누구

인지 정기적으로 상하지 않는 학생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나(케이티)의 대학 시절, 화요일 밤은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저녁으로 수프를 먹는 날이었다. 우리는 그날 겪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말을 비롯하여, 공허하고 파괴적인 파티의 짠 칼로리를 실질적인 영적 대화와 진교를 제공하는 따뜻하고 풍부한 사우어도우 빵으로 대체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다음 날 아침이면 친구들이 떠들어대는 세상의 해로운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고 싶어졌다. 진실을 옹호하며 싸우는 나의 이야기가 다음 화요일 밤 저녁에 좋은 화제거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3. 바벨론을 축복하라.

대학의 "식탁"을 피하는 것이 분리주의적이고, 전투적이며, 또 불신자들에게 대해 냉담한 태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 결을만 더 들어가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세상과 적절하게 전략적 거리를 둘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을 축복할 수 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학자를 모두 죽이려고 했다(단 2:12). 지식과 인간 생명을 향한 체계적인 파

괴는 현대 바벨론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인문학에서 발생하는 지적 자살과 학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바로 그 현상이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해결의 시작은 교제와 기도였다(단 2:17-19).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연결은 제국에까지 생명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벨론의 지식을 보존하셨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강한 확신을 가진 명철한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그들은 강의실을 포함해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절한 순간을 만나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와 명확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언제라도 불신자들을 신앙의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선포를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일대일 캠퍼스 생활 습관에 대한 숙지 없는 저항과 매일 쌓아가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서 시작한다.

민지 않는 학우들과 진리를 나누기 열망하는 캠퍼스의 그리스도인은 능동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간에

서 어울리고, 그들의 문화적 일상에 동참하고, 또 일종의 전도이전 활동으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문화적으로 적대적인 바벨론에서 필요한 것은 정 반대라는 사실이다. 이교도들을 확고한 믿음의 교리로 이끌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이교도들이 즐기는 의식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침식하는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불신자들이 달려갈 수 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

4. 저항의 공동체를 만들자

나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학생들을 생각할 때, 대학을 바라보면서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의심할 바 없이 오늘날 대학은 바벨론의 짐승이 날뛰는 최첨단의 전선이다. 현대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선택은 간단하다. 바벨론의 방식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저항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저항의 길을 선택한다면 전략적이고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단지 막연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불신자와 친해지려고 나를 노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말할 것도 없고 전도

리는 장기적인 전략으로서도 효과적이지 않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전략을 보여준다. 왕에게 맞서고, 정기적으로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는 어떻게 해야 바벨론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신자들과 함께 저항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만 있다면, 대학 전체를 구원할 수도 있다. 형제자매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신실한 정통을 공부하고 그 정통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한다면, 대학의 지혜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마음을 두는 식탁 교제를 즐겨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풀무불이나 사자굴 앞에서도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시련과 환난, 사회적 칼날이 다쳐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을 바벨론에 두신 하나님, 그를 사자 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서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신다. 그들을 바벨론에서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캠퍼스 생활이라는 바벨론에서도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길 바란다.

by Catie Robertson Andrew M. Selby, TGC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장로교회, 설립53주년감사 연합예배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설립 53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교육부 자녀와 청년부, 온가족이 함께 9월17일(주일) 오전 10시 연합예배를 드리며,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다. ▲ 문의: 718-706-0100

퀸즈장로교회, 무료독감 예방접종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9월23일 (토) 오전 7시 본 교회 지하천교실에서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보험소유자는 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 문의: 718-886-4040

필그림선교교회, 무료 독감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준길 목사)는 9월24일 주일 무료 독감예방접종 및 건강상담을 개최한다. 독감예방접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이며 대상은 18세 이상 선착순 150명으로 제한한다. 건강상담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피부과, 치과, 발전문, 한방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소아과, 내과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한다. 장소는 필그림선교교회 비전센터 #4이다. ▲ 문의: 교회 사무실 (201-461-1225)

벤틀교회, 2023 고엘신학원 가을학기 개강

벤틀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2023 고엘신학원 가을학기를 9월18일(월)에 개강하며 12주간 진행된다. 수강료는 \$100이고 장학시 \$50이다. 과목은 기독교사역개론(이정우 교수) 월요일 오후 7:30분부터 9시까지, 화해론(임효석 교수) 화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이정우목사(jungwooli@bethelchurch.org)에게 하면 된다. ▲ 문의: (410) 461-1235-6, 8351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9월 기도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는 9월16일 (토) 오전 8시에 9월 기도회를 프라미스교회 켄세마네션전(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917-841-7552

은혜와 평강교회, 탁구 동호회원 모집

뉴저지 잉글우드에 위치한 은혜와 평강교회에서는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동호회원들을 모집한다. 운동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휴일이나 교회행사가 중복될 경우 휴식) ▲문의 및 신청: 은혜와 평강교회 (201-541-7670, gprcnj@gmail.com)

뉴욕가정상담소 경제자립프로그램 2023년 가을학기 수업 개강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가 진행하는 경제자립프로그램 2023년 가을학기 영어와 컴퓨터수업이 9월11일 월요일, 재봉수업은 9월13일 수요일 개강했다. 모든 수업은 무료로 제공되며, 영어 수업은 초급, 중급과 고급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총 45명의 수강생이 이미 등록을 완료했으며, 영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원어민 교사들과의 수업이

통해 취업영어, 생활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자신감있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에 맞춰 개설되는 컴퓨터와 재봉수업은 현재 컴퓨터 통합반과 재봉 초급반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수업에 있는 모든 직업에 필수인 쿠키, 엑셀, 웹사이트 제작등을 배울 수 있다. 재봉 수업은 FIT 출신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직접 패턴



뉴욕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KAPC 뉴욕노회 제93회 정기노회 개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회(KAPC) 뉴욕노회 제93회 뉴욕노회(노회장 임병순 목사)가 9월12일(화) 오전 10시에 새벽별주일교회(담임 정기태 목사)에서 열렸다. 회무처리 안건으로 오메가 선교교회(담임 홍춘식 목사) 이전, 열린교회(담임 임영건 목사)의 교회 이전 및 교회 명칭 '주안에교회'로 변경 건, 노회 회원 명단 수정의 건을 모두 승인했다. 개회예배는 노회장 임병순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기도 정기태 목사, 성경봉독 김경수 목사(뉴욕선교교회 담임)에

이어 임병순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임 목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11-16)의 제목으로 “우리는 목사와 사역자라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함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라고 설교했다. 전노회장 이윤석 목사(브르클린제일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과 아웃 디자인, 기성복 리폼방법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칠 예정입니다. 뉴욕가정상담소에서 진행하는 경제자립 프로그램은 뉴욕에 거주 중인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가을학기는 2024년 1월 말에 종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1:1 직업 및 진로 상담, 이력서 작성 및 모의 인터뷰 훈련과 같은 경제자립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 가정상담소 경제자립프로그램 담당자 Helen Jin 전화 917-887-9173 이메일 helen.jin@kafsc.org <기사제공 - 뉴욕가정상담소>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창립 50주년기념 뉴욕세계대회 ‘여호와와 기를 세우는 것...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청주중앙순복음교회(담임 김상용 목사) 창립 50주년기념 뉴욕세계대회가 뉴욕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 뉴욕프리마스관으로 9월11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전홍식 목사가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안내 한 뒤, 김남수 목사가 감사를 소개했다. 김남수 목사는 “김상용 목사는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에서 50년을 목회하고,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결어은 목회자이며 목숨을 바쳐 교회를 세우고 사랑과 눈물로 목회 오십 년, 반세기를 지내온 목사님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세미나는 제 1강 여호와와 기를 세우라! (김상용 목사), 제 2강 4/14 세계 선교전략 (김남수 목사), 제 3강 목회와 성전건축 (김상용 목사), 제 4강 선교와 사업(이대희 장로)

의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여호와와 기를 세우라 (출 20:7, 사44:6)’라는 주제로 첫강의를 맡은 김상용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호와와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와 기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여호와와 기를 세우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쳤다. 둘째,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했다. 셋째, 50주년을 맞이하여 온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했다”며 “이에 인도네시아, 대만, 미국 서부를 거쳐 뉴욕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뉴욕장로성가단의 찬양이 있었으며 모든 순서는 김남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주최 뉴욕세계대회 사진촬영 했다



제 1회 뉴욕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 개강예배 후 사진촬영 했다

베이스айд장로교회, 뉴욕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 “다시 소명을 일깨우고 불태우는 자리”

베이스айд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는 9월11일(월)부터 9월14일(목)까지 제 1회 뉴욕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를 본 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주지역 13개 주(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플로리다, 미조리, 미시간,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이오와, 아리조나)와 5개국(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에서 46명이 참석했다. 담임 이종식 목사는 “베이스이드장로교회가 걸어왔던 길을 나눔으로 어려운 시간에 건강 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을 많이 받았다”며 “하나님이 목

회자 세미나에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여기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도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강예배는 기도 이병욱 장로, 설교 이종식 목사, 오리엔테이션 김조슈아 간사로 진행됐다. 이종식 목사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출 3:16-18)’라는 제목으로 “목사의 자격은 소명이다. 소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앞에 자신 있게 서게 만들고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힘이 있다. 이번 세미나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되고 다시 소명을 일깨우고, 불태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다른 길을 가면 편안해도 마음은 편치 않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길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소명자의 길이”라고 말하며 “나도 이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소명을 말했다. 설교에 이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소명감을 회복시키고 소명감으로 뜨겁게 하여 목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함께 통성기도 한 후 개강예배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임직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퀸즈중앙감리교회, 창립40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퀸즈중앙감리교회(담임 이요섭 목사)는 9월10일 (주일) 창립40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가 본교회에서 열렸다. 임직자는 권사 김인화·조경실·홍경미 집사 김성규 이다. 창립40주년 감사 및 임직 예배는 이요섭 목사 인도를 시작 오후 기도 우성일 권사(임원회장), 설교 임찬순 목사(Covenant UMC), 축사 차철회 목사(청암교회), 특별 시상의 시간을 가졌다. 임직식은 임직자 기도(임직자 일동), 임직자 권면 이선구 목사(샘이 깊은 교회), 임직자 대표인사(홍경미 권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이 100년 안에 이를 것이다”를 인용하며 ‘통일한국’과 ‘지구촌 기독교 시대-새 기독교 문명 못자리’에 대해 설교했다. 차철회 목사(청암교회)는 “퀸즈중앙감리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인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내고 있다. 앞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날 성도들은 지난 40년 동안 교회를 지킨 김은도 장로(96세)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모든 순서는 임찬순 목사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 퀸즈중앙감리교회>

이요섭 목사는 “2023년 창립 40주년 감사 및 임직 예배에 오셔서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순서를 맡아주시는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퀸즈중앙감리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우리 모두 소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임찬순 목사는 “그날이 오면, 그이가 오시면(사 11:1-10)” 설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1912년 12월)에서 유대인이 서양에서 기독교를 선물했듯이

피종진 목사 9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향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금) 오전 국세선교회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1(금) 오후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회 : (대회장 하민규 목사) 010-4466-0545

1(금) 저녁 서울강남남반석교회 (강사명 목사) 010-8331-3431
 2(토) 오전(사)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정책위원회 Conference 장소: 본부(남서울중앙교회6층)
 3(주) 오후 서울 예수기쁨교회 (김효진 목사) 010-3700-3761

4(월)~5(화) 일본 (JAPAN) 오사카 중앙교회 Center, GoodTV 부흥사회 해외 Conference
 주회 : GoodTV부흥사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용희 목사) 010-7291-0291
 6(수)~7(목) 일본 (JAPAN) 오사카 Discippling, group M.T
 7(목) 일본 (JAPAN) 간서지방 Discippling, group M.T

8(금) 정오 시카고 성회 준비모임,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관악캠퍼스타워 B-1
 9(토) 오후 서울 Maranatha 신학대학원 대학교 010-8331-3431
 10(주일)~13(수) 세계성지순례 제1회 제주주머니순 (대표총재 정상 (전 국무총리) 이사장 피종진 목사)
 14(목) 오전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사무총장 이강복 목사)
 010-4734-7100 장소 : HW Convention Center (하림각)
 14(목)~15(금) 새벽 대구 햇빛연예교회 (정혜영 목사) 010-8014-8121
 15(금) 저녁 서울강남반석교회 강사명 목사 010-8331-3431

제 233차 해외성회 (233rd Overseas Assembly) 주회 : 韓美 부흥사업
 韓美 연합부흥강사단(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동유럽 영적각성특별성회) 010-2238-3999

18(월)~20(수) 헝가리 (Hungary) 고평마름 (유럽 영적각성센터 신은규 선교사)
 주회 :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21(목)~22(금) 독일 (German) 체코 (Czech)
 23(토)~24(주) 오스트리아 (Austria)
 25(월)~26(화) 체코 (Czech)
 27(수)~28(목) 슬로바키아 (Slovakia)
 29(금)~30(토) 유럽 기독교성지 탐방

30(토) 저녁 서울 Maranatha 신학대학원 대학교 010-8331-3431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s.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기도회 열려

“이 나라의 영적 재무장을 위해 기도하며 도전해야”

다민족이 연합하여 매년 미국의 영적회복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 오는 다민족연합기도대회(MEPG)가 올해는 10월1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지난 9월8일(금) 오전 8시 은혜한인교회서 히스패닉을 비롯하여 다민족 크리스천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한인교계 지도자 등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준비기도회가 열렸다.

강순영 목사(MEPG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준비기도회는 알리스 리차드 목사(살비치 Rock Church 담임) 기도와 환영사 MEPG 대표 회장 한기홍 목사, 설교 데이빗 디아즈(New Begining 교회 담임) 목사, 격려사 레오 푸엔테스 목사(엘리트교회) 식사기도 심사는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설교에 나선 데이빗 디아즈목사는 22년 전 한국인 목사에 의해 새벽기도회에 도전받고 지금까지 매일 새벽기도회를 열고 있는 목회자로서 현재에도 토요일에는 100여명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한기홍 목사는 “하나님은 다민족을 이루어 사는 미국이 영적,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 이 나라로 부름 받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나라의 영적 재무장을 위해 기도하며 도전해야 한다. 오늘 다민족 지도자들이 그런 소명을 깨닫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회복되기 위해 힘을 모아 기도하자”고 환영사를 통해 당부했다. 한편 이날 네 명의 기도 인도자가 나와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유수연 ABC통합교육구 교육위원이 ‘미국의 법과 교육을 지켜 주소서!’란 제목으로, 길버트 목사가 ‘우리 도시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수 피터 목사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울프 강 목사가 ‘우리 기도사역을 축복하소서!’란 제목으로 각각 기도회를 이끌었다. 이날 광고 시간에는 강태광 목사(MEPG 사무총장)가 ‘앞으로 2년 안에 캘리포니아에 1000개의 Prayer Cell(소그룹 기도팀)

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기도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울프 강 목사가 ‘Pray California’에 관해, 그리고 홍신우 목사가 중보기도

팀 연합기도회에 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연합준비기도회는 송정명 목사(MEPG 고문)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기도회에는 한인교계에서 박성규 목사, 민경엽 목사, 박세훈 목사 등이 참석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LA기쁨의교회 설립 14주년 기념예배에서 이희문 목사와 교인들이 찬양하고 있다

LA기쁨의교회 설립 14주년 기념예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자”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 설립 14주년 기념예배가 10일(주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이희문 목사는 “14년전 한인타운에 기쁨의교회가 세워졌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쁨의교회가 예수님 닮기를 바라는 교회,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전 10시30분 조이찬양단(인도 정승연 목사)의 찬양인도와 이희문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정경현 장로가 기도했으며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본교회 영커플과 이순영 집사의 바디워십이 있었으며 이희문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살전 1:4-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희문 목사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전도 때 유럽에 세운 교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다”며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교회는 첫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이다. 둘째,는 믿음이 소문난 교회이다. 세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이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이고 종말론적인 교회였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는 특별한 기관이고 조직이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세상의 희망이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기 때문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곳이고 주님의 눈길 머무는 곳이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시다. 설립14주년 맞이하여 교회와 우리 각자를 돌아봤으면 한다. 14년 동안 지켜주시는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저소득 학생 무료 성악클래스 후원컨서트 출연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저소득 학생 무료 성악클래스 후원컨서트

주빌리뮤직아카데미...6-12학년 학생 대상으로

주빌리뮤직아카데미(원장 김미경 사모)는 저소득 학생 무료 성악클래스 후원컨서트를 8일(금) 오후 7시 중앙일보아트홀에서 가졌다. 김미경 원장은 “디도서 3장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라는 달란트를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꽃피우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자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며 “6-12

학년 학생 중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LA지역의 최고 성악가들에게 사사받을 좋은 기회를 마련하여 그들이 좋은 성악가와 음악가가 될 수 있기를 소망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원장 사회로 시작된 이날 컨서트는 소프라노 김미경, 메조소프라노 조지영, 테너 오우영, 바리톤 장상근이 피아니스트 김주영의 반주에 맞춰 독창, 중창으로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세계선교교회 창립50주년 감사예배 및 선교부흥회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 창립50주년 감사예배가 24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또한 창립 50주년 선교부흥회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29일(금)부터 10월1일(주일)까지 열린다. 선교부흥회 강사는 원용수 미안나 선교사이며 일정은 29일(금)과 30일(토) 저녁 7시 10월1일(주일) 오전 8시, 11시이다. ▲ 문의: (213)388-1927

제15회 선교와 이웃돕기 위한 사랑의찬양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오승홍 장로)는 제15회 선교와 이웃돕기 위한 사랑의찬양제를 17일(주일) 오후 5시30분에 갖는다. 이날 남가주장로성가단(지휘 장진영), 나성영락교회 3부 찬양대(지휘 광현진), 이화여고 동창 합창단(지휘 민재희), 칸투스 남성 중창단(지휘 장상근), 살비치합창단(지휘 백경환),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창단(지휘 장진영), 서울 가야금 합주단(단장 장정선), LA목사 중창단(지휘 서문욱),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가 출연한다. ▲ 문의: (909)319-2159, (909)319-2158

세리토스장로교회 가을영성집회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가을영성집회가 15일(금)부터 17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집회 강사는 오 건 목사(코이노스 영생장로교회)이며 집회일정은 15일(금) 오후 7시30분, 16일(토) 새벽 6시, 오후 7시, 17일(주일) 1.2.3부 예배 이다. ▲ 문의: (562)677-7777, 860-5451

동덕동문합창단 야외음악회

동덕동문합창단(단장 박영애, 지휘 김미선 목사) 주최 야외음악회가 ‘노래와 함께하는 짧은 추억여행’이라는 주제로 30일(토) 오후 5시 예수커뮤니티교회(담임 박경일 목사) 정원에서 열린다. 이날 정인원 기타리스트가 특별출연한다. ▲ 문의: (213)369-3861

2023세계선교대회

국제총회(총회장 박병섭 목사)에서 주관하는 2023세계선교대회가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714)446-6200

2023년 ‘좋아성’ 세미나

도렌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2023년 좋아성(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세미나를 15일(금)과 16일(토) 양일간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고자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강사는 이영숙 박사(좋은나무 기독교 이사장, GoodTree USA 대표)이며 일정은 금요일 저녁 7시30분, 토요일 오전 9시30분이다. ▲ 문의: (201)693-1976



앵커리지 열린문교회 유재일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함성주 목사 위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가미노회 제 77회 노회, 앵커리지 열린문교회에서

유재일 원로목사 추대, 함성주 담임목사 위임식도 가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의 가미노회(Canada-America Presbytery 노회장 천영일 목사)는 지난 8월 30일(수) 77회 가을노회로 모였다. 캐나다 BC주와 알버타주,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를 포함한 교회들로 구성된 가미노회는 앵커리지 열린문교회(유재일 목사 시무)에서 노회를 진행했다.

이날 노회는, 부노회장인 오영환 목사(칠리악 사랑의 교회)의 예배인도로 시작 돼 노회장 천영일 목사(주바라기 교회)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하의 설교를 했으며 주석한 목사(에드몬튼 소망교회)의 집례로 성찬식이 진행됐다. 이어 회무처리에서는 노회원의 총회 참석을 위해 노회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총대들에게 총회등록비를 지원하는 것과 팬데믹 때문에 중단되었던 “본 교단 신학교의 밴쿠버 분교”를 새롭게 시작하는 건을 은혜롭게 처리했다. 또한 이번 가미노회는 무엇보다 29년 9개월을 시무한 유재일 목사(앵커리지 열린문교회)의 은퇴와 원로목사 추대 그리고 함성주 목사(앵커리지 열린문교회)의 위임식이 전 성도의 만

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노회였다. 은퇴하는 유재일 목사와의 간담회를 통하여서는 성역 50년의 삶을 일축한 “주의 머슴”의 삶을 나누어 후배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또한 성전건축을 위한 작정 헌금 없이 성도들과 목사님의 일심의 기도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나눌 때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목회 사역 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불합리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는 자신의 약함을 보게 하고 더 무를 꿇게 되었다는 말씀을 나눌 때는 모두가 공감하면서 동시에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이 주님께 아름다운 보석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열린문 교회 성도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풍성한 섬김을 통하여 마치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온정성과 사랑이 함께 참여한 노회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가슴 속 깊이 새겨졌고, 큰 감사와 기쁨을 선사한 가장 행복하고 있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가미노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유수연 사모가 강연하고 있다

주님의 빛 교회 유수연 사모 초청 집회

“교육사역은 아이와 부모, 모두 영적으로 살리는 사역”

주님의 빛 교회(담임 주혁로 목사)는 ‘마지막 때 우리의 자녀 주님의 십자가로 지켜냅니다!’라는 주제로 ABC통합교육위원 유수연 사모 초청, 8일(금)부터 10일(주일)까지 집회를 가졌다. 주혁로 목사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10일(주일) 오후 6시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에서 유수연 사모는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시대는 심령이 너무 부자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든 거 같다”며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일례로 우리는 현재 영적 전쟁을 겪지만 정작 교회들은 전쟁 속에 있지 않아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사모는 “선거를 하면서 많은 동지를 만났다. 4년 전 스콜보드 컨퍼런스에서 백인목사가 성전환에 대한 위협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 주어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하며 “2016년 이전까지는 캘리포니아에 동성애 이슈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캘리포니아에 동성애 이슈가 매우 심각해져있음을 알게 되었다. 70대 이상 미국노인들은 자신들이 자랐던 시절의 캘리포니아가 아니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유 사모는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 미국에 인구가 너무 많다는 이슈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를 낳지 말라고 아이들

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다. 학생이 15-20%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면 2030년 경 캘리포니아에 인구가 30%가 줄어들어 문 닫는 학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공립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우선 인구가 줄었고 젊은2세들이 공립학교에 안보내고 홈스쿨링과 사립학교로 아이들을 보낼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2세들의 경우 LGBT에 대해 우호적이지만 자신들의 아이는 LGBT와 역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자들 중에 의를 추구하는 자들도 있다. 그들이 의를 추구하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유수연 사모는 “주님의빛교회는 헤브론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회들이 헤브론학교처럼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사역은 아이들과 부모 모두를 영적으로 살려내는 사역이며 교회만 해서는 안되며 학부모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유수연 사모가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주

(박준호 기자)



“목사님, 챗GPT 쓰지 마세요” ...교회의 AI 활용법은?

총신대 12일 심포지엄 개최

교회의 챗GPT 사용은 시기 상조라는 제언이 나왔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개혁 신학연구처(원장 강웅산 교수)가 12일 경기도 용인 총신대 신대원 100주년기념관에서 ‘챗GPT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가을 심포지엄에서다.

과 윤리적 기준부터 세우고 교도 내 챗GPT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목회자들이 AI에 대응하려면 우선 경험에 따른 설교와 영성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현신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교회와 챗GPT를 서둘러 활용하는 건 시키상조”라며 “신학자들의 비평

세계 각국에선 AI를 활용한 설교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 독일 바이에른주의 성바울교회 예배당엔 챗GPT 기반의 AI 목사가 4명 등장했다. 남성 과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한 가

상의 목사들은 설교 외에도 기도 찬양 등을 이끌었다. 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엔 AI 예수가 등장해 누리꾼들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면서 방송을 이어갔다.

하지만 AI가 생성한 설교는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었다. 박 교수는 “챗GPT에 설교문 10편을 써달라고 했는데 이단 교리로 보이는 내용이 생겼다”며 “출처를 밝히라고 하니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총신미디어 연구소장도 “챗GPT로 신앙 교육을 시작하는 건 위험하다”며 “성경에서 공금한 내용이 있다면 신앙의 기반부터 다져놓고 AI 챗봇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가짜 성구가 공유되는 등 세계 각국에서 AI의 도전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교단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총신대는 다음 달 중으로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성규 총신대 총장은 “교회의 질문을 넘어 AI를 둘러싼 사회의 물음에 총신대가 답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단 탈퇴 후유증으로 ‘가정불화’ ...탈퇴 후에는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서 ‘신과 함께 부부’ 등장

이단·사이비 단체 탈퇴자들이 겪는 여러 문제 중 하나는 가정불화다. 오랜 시간 자신이 믿어온 것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면서 심리적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1일 방영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단으로부터 탈퇴한 부부의 가정불화 사연이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의 공분과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에서 벗어나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탈퇴자들을 위한 심리지원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회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탈퇴를 결심했다. 탈퇴 후유증은 가정불화였다. 이들은 프로그램에서 “(탈퇴 이후) 부부관계가 나빠졌다. 첫 이혼 얘기가 이 일이 있고 나서였다”고 고백했다. 특히 남편은 “탈퇴 후에 교리를 어겼다는 죄책감으로 공황장애와 폐소공포증이 생겼다. 솔직히 예전 단체에 다니던 생각이 자주 난다”며 여전히 (잘못된) 믿음을 놓기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는 이단·사이비 종교로 인해 서로의 믿음이 깨져버린 ‘신과 함께 부부’가 출연해 충격을 던졌다. 둘은 이단·사이비로 알려진 단체에서 만나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나 정통 교단과는 거리가

이들처럼 이단·사이비 탈퇴 후에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까지 갈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국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탈퇴자 A씨는 단체에서 빠져나오면서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생이별을 겪어야 했다. 여전히 남편이 아들과 함께 단체에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A씨는 12일 “JMS를 탈퇴하

겠다고 하자 남편에게 1년 동안 폭력과 폭언을 당해 여성 쉽터로 도망쳤다”며 “이혼 뒤에도 여섯 살인 아들은 남편에게로 가 지금까지 딱 한 번 봤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JMS 피해자 지원 단체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겪은 사람을 만나 회복되고 이단·사이비 예방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은 탈퇴 후 가정불화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차재용 감리교이단피해예방센터장은 “탈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단·사이비로부터 탈출한 후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며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순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정신적 요소가 섞인 복합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감정을 앞세워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더디게 회복되더라도 가족 간에 신뢰를 회복하면서 이단 교리에 대한 반증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민을 바른미디어 대표는 “교회가 이단·사이비를 배척하려 노력한 만큼 탈퇴자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단체에서 나오라고만 외쳤지 탈퇴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한국교회가 나서서 이들이 온전한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으로 교회 섬기자” ...한국교회법학회 10주년 기념호

기독교사학 자율성부터 동성애까지 한 권에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가 학회지 ‘교회와 법’ 제10권 1호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교회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호로 발간된 이번 호엔 학

회 10년 사역을 정리한 ‘법으로 한국교회 섬기기 10년’과 ‘비전 선언문’이 함께 실렸다. 소강석 이사장과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진표 국회의장이체의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등의 축사도 담겼다. 학회는 ‘사립학교 과잉규제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등 지난 6월 제31회 학술세미나에서 기독교사학 자율성에 관한 논문 3편도 이번 학술지에 특집논문으로 수록했다. 또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동성 커플과 국민건강보험’ 등 동성애 관련 일반 논문과 2023년 교회 관련 판례도 정리했다.

이밖에도 이번 학술지엔 각 교단이 9월 총회에서 공통으로 천명할 ‘2023 한국교회의 공공정책과제 자료안’이 담겨있다. 이번 학술지는 한국교회법학회 처치엔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법학자와 행정학자 신학자 목회자 등의 연구논문을 수록해 매년 1~2회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교회와 법’은 2022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돼 발행되고 있다.



복음 담은 댄스·뮤지컬을 목회에 활용하고 싶다면...

GNC 포럼 ‘문화 목회’ 대안 제시

한국교회 문화 목회에 대한 컨설팅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온 GNC(Good News Contents)포럼이 11일 서울 강남구 광야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광야아트 미니스트리(대표 김관영 목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독교문화 사역 단체가 연대하는 GNC패밀리는 지난 2019년 첫 포럼을 연 후 이듬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영화 찬양 뮤지컬 등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했다. 3년 만에 열린 제3회 GNC포럼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과 ‘확장’이었다.

찾아 사역에 접목할 수 있는 ‘GNC 웹 플랫폼’이 공개됐다.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의 플랫폼에는 GNC포럼 회원 단체들이 제공하는 20개 콘텐츠들이 소개된다. 광야아트 미니스트리 총괄본부장 윤성인 선교사는 “복음을 담은 문화 콘텐츠를 목회 사역에 활용하는 모습이 일상화된 시대”라며 “사역 지향점을 성도들과 잘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연결하는 도구로 플랫폼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다양하고 검증된 문화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GNC패밀리가 연결하는 문화 콘텐츠는 기독교 댄스(PK, 델로) 어린이 뮤지컬(히즈쇼) 집회(드림라이프,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캘리그라피(정현제이) 쇼핑몰(로아LOA, 동방박사)

콘서트(프레이즈캐더링, 빅과이어, 송미니스트리), 영화(기독교영화제작협회, 커넥트 픽처스) 영화관(필름포럼) 공연장(광야아트센터) 카페(카페몰라남, 어라이즈 카페) 뮤지컬(더 북) 교육(넥스트엠, 바움하우스) 청소년 캠프(교회친구 다모어) 등 13개 장르로 나뉜다.

포럼 현장에서 시연된 웹 플랫폼에는 각각의 문화사역 팀 소개 영상과 함께 활용 가능한 영역(초청 공연, 교육, 콘텐츠 단체 관람 등), 담당자 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교회가 신년 부흥회에 장년 성도들을 위한 찬양 집회와 교회학교 성도들을 위한 콘텐츠가 필요하다면 각 사역팀 정보를 확인한 뒤 일정에 맞게 온라인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주요 절기에 맞게 영화나 뮤지컬 단체 관람, 캘리그라피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공연을 위해 아무 창작과 레슨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플랫폼은 베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4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델로팀의 댄스 공연, 드림라이프의 클래식 미니 콘서트, 극단 ‘광야’의 창작 찬송극 등 주요 콘텐츠 실연도 진행됐다. 김관영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와 사역 단체를 연결해 시대를 깨우는 양질의 크리스천 문화를 확장해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성도 6만명 늘어 V자 반등... ‘살롬부흥’ 전도 캠페인 값진 열매

예장합동 1년 총력... 재도약 모멘텀

전도에 앞장서기로 다짐한 선봉교회 1521곳이 전국에 조직됐고, 교인과 전도 대상자가 한 데 묶인 셀(cell·세포) 모임이 10만개가 만들어졌다. 올 초 7주 동안 이어진 집중 전도 기간을 끝내고 지난 3월 19일 전

국 교회가 ‘블레스 데이’라는 총동원주일 행사를 연 뒤 교회마다 많게는 500명 넘는 새 신자가 등록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꼭 1년

동안(107회기) 펼친 ‘살롬부흥’ 운동이 맺은 전도 열매다. 이 운동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취지의 교단 전도 운동으로 권순웅 총회장이 취임 후 내건 연중 캠페인이다. 이 기간 예장합동 산하 교회에는 모두 5만9151명의 교인이 새로 등록했다.

인구감소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는 회의론 속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1년 만에 신자 수가 ‘V’자 반등을 하면서 ‘전도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교계 전반에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팬데믹 이후 실추된 교회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평가도 눈길을 끈다. 서울 관악구 예우림교회(유병희 목사)는 지난 3월 블레스 데이 때 274명이 교회에 새로 나왔고 이후 156명이 더 늘었다. 전형적인 농촌교회인 전북 완주군의 배월교회(이주백 목사)도 살롬부흥 운동의 전도 전략에 따라 전도를 진행한 결과 6명의 새 신자가 교회에 정착했다. 연말까지 3명 정도 더 정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골교회로서는 값진 열매다.

권순웅 총회장은 “총회가 제안했지만 전국 노회와 산하 교회가 적극 동참한 덕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면서 “부흥을 위해 수립한 전략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작동하면서 6만명에 가까운 새 신자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 대명사...

(3면에서 계속)

파우스트는 자신이 “인간에 대한 강력한 변증”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침을 “전면에 배치”하기 때문에 대명사, 성별, 섹슈얼리티와 같은 주제는 이미 형성된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주제에 관하여 CT가 인터뷰한 사람들 사이에서 연민과 동정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언급되었다. 온라인으로 스트리

밍된 설교에서 조쉬 하우튼 목사는 청중들에게 트랜스젠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주제이며 트랜스젠더를 “정죄”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설교 중에 박수치거나 “아멘”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소년과 함께 일 하는 몇몇 복음

주의 목회자들은 관계의 맥락에서 연민과 진리를 바탕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사랑하면서 정통 기독교의 기준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CT에게 말했다.

North View 교회의 라이트 목사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항상 만남의 시작에서 관계의 형평성을 구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tatement of Ownership, Management, and Circulation table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irculation data for print and electronic copies.

mission 선교의 창 (223)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타이완 Mission Trip 단상(斷想)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타이완을 떠 난지 30년 만이다. 그렇다면 이곳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다 말인가? 옛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기 사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야릇한 궁금종이 밀려왔다.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기도 했다. 옛 기억들을 더듬으니 하나 둘씩 주마등(走馬燈)처럼 되살아났다. 야속한 세월이여, 무심한 사람들이여. 우리는 바쁘고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서로 잊고 살았다. 어느새 비행기는 타이완 상공에 이르렀다. 위에서 내려다 본 지형은 큰 고구마 모양을 띠고 있었다. 나는 착륙하기 전 기도를 했다. “주님! 2,400만 영혼들이 거주하는 이 땅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순직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그 사이 큰 기체는 진동을 일으키며 타이베이 국제공항에 안착했다.

1. 타이완 기후와 지형

9/2일 늦은 오후였다. 공항에서 臺中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승차장으로 나왔다. 아열대 기후의 여열이 확 다가왔다. 덥고 습한 공기였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등에서 땀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에어컨이 빵빵한 리무진 버스에 오르니 상쾌함이 느껴졌다. 지정석에 앉아 차창 밖 전경을 유심히 살폈다. 평균적으로 5층 정도의 신식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옛날에 비

해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가 아닐까? 건물들 사이로 해가 누엣누엣 지고 있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땅거미가 어스름하게 내려져 왔다. 타이완은 중앙 산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마치 등뼈처럼 가로지르고 있다. 봉우리들의 평균 고도가 3,000m를 넘는다. 섬에서 가장 높은 위산(玉山)은 표고가 3,997m이다. 산맥의 동쪽은 태평양 연안을 끼고

는 너무나 반가웠다. 그는 올해로 38번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두 목사 부부는 나를 인근의 식당으로 안내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뻔히 쳐다보았다. 늘 청년 같은 그에게도 이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다. 안타깝게도 두 사모(杜 師母)는 큰 수술 후라 몸이 아되어 있었다. 그간 사역하면서 받은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까? 나는 옛 교우들의 안부를

질벽이 계속된다. 그에 비해 서쪽은 비옥한 평야가 완만하게 펼쳐져 있다. 여기 국토는 한국(남한)의 1/3 밖에 안 됨에도 이렇게 험산준령(險山峻嶺)이 있다. 년 중 내내 폭풍우가 잦다. 강우량이 풍성하기에 초목들이 푸르고 싱싱하다. 그러고 보면 사막기후에 시달린 캘리포니아 초목들은 불쌍하기 그지없다.

2. 思恩堂 의 사람들

9/3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주일 날 아침 나는 택시를 타고 교회에 갔다. 1부 예배가 끝나고 갔다. 杜 목사는 나를 보자 깜짝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연락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물었다. 어려움 가운데 다행히 시암메이와 지아원 자매를 연결시켜 주었다. 그들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들고 황금빛이 나타났다. 젊고 예뻐던 청년들이었는데 벌써 50대 초반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냉엄한 세월이 미웠다. 교회를 떠나면서 나는 마음 한켠에 쓸쓸함이 없지 않았다. 옛날 함께 예배하며 우정을 나누었던 교우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였다.

3. 내가 좋아하는 타이완의 음식

타이완에는 도처에 식당이 있다. 날씨가 습하고 덥기에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하기보다 인근의 식당을 즐겨 찾는다. 나는 품격 있는 고급 식당보다 길 거리에서 파는 음식을

좋아한다. 값도 싸고 편리하다. 바쁜 아침에 거리 음식은 너무나 대중적이다. 5분이면 충분하다. 주된 메뉴는 주먹밥(飯糰: 판두안), 계란말이(蛋餅 판빙), 무우떡(蘿蔔糕: 루오보카오), 밀가루 튀김(油條: 요우티아오), 콩물(豆漿: 포우장), 밀크티(奶茶: 나이차) 등이다. 나는 오토바이를 탄채 판두안과 따뜻한 포우장을 마실 때의 그 맛과 기분을 잊을 수 없다. 그런데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타이완의 명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동네 상점 어디에서나 팔고 있는 군고구마였다. 너무 달고 맛있었다. 나는 어렸을 적 고구마를 많이 먹고 자랐다. 인이 박혀 지금도 고구마를 좋아한다. 여기 고구마가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이다. 나는 저녁 식사와 상관없이 매일 고구마를 삼 먹었다. 신기한 것은 이 땅 백성의 사랑을 받고있는 고구마가 타이완의 지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 무슨 연고일까? 바라건대 저들도 복음으로 거듭나

이상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고 여긴다. 생각해 보라. 자기 집을 떠나 한달(30일)만 외국에서 살아 보라고 할 때 힘들어 하지 않을까? 그런데 3년이 아니요 30년도 넘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낯선 문화권에서 청춘을 바쳐 사역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내가 본 한국 선생들은 서구에서 나온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지원과 환경 속에서 있다. 그러함에도 계산적이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남다른 성과를 내고 있다. 저들에게 두고 온 노 부모에 대한 지원이 있던가? 안식년이 있던가? 노후대책이 있던가? 저들의 고독, 아픔, 슬픔, 갈등, 눈물, 뒤척임, 철야, 금식, 기도, 회생, 제사, 섬김, 열망, 감사, 환희를 누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5. 하나님 보여주시신 신성한 충격

금번 Taiwan Mission Trip을 통해 나는 수고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을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 가장 큰 감동은 高雄의 김선생 부부였다. 그들은 가능한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뒤로 한채 온전히 현지인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는 OMF을 일으킨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방향이기도 하다. 어떻게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저렇게 땀 수 있을까? 나는 농담조로 말했다. 당신들은 언제 숨을 쉬느냐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수고를 받으시고 사역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까지 복을 주고 계셨다. 그는 말했다. 아무리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을 시켜도 자기가 제자가 안 되어 있으면

모두 헛 탕이다. 백번, 천번 맞는 말이다. 선교의 핵심은 전략이나 기술(Skill)이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는 김 K.M.선생이 20여년 이상 사용하고 있던 성경책을 보았다. 그 중국어 성경책은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양한 색깔로 채색되어 있었다. 각 페이지 여백마다 참고 자료인 글씨가 빼곡히 써 있었다. 나는 그 낡고 닳은 성경책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선한 투쟁을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훗날 언젠가 그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그 성경책을 받아 한국교회 선교 유산으로 보관했으면 싶다.

맺음 말

9/8 금요일 오후 1시, 내가 탄 비행기는 타이베이 공항을 이륙했다. 나는 지난 1주일간의 여정을 돌아봤다. 지그시 눈을 감고 좋은 소식, 가슴 아픈 사연, 스쳐지나가는 얼굴들을 가슴 속에 일일이 담았다.

포르모사(Formosa)는 포르투갈 어로서 아름다운 섬이란 뜻이다. 타이완은 큰 고구마처럼 생겼으며 이것은 동네 상점 어디에나 있다. 원컨대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땅의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주옵소서.

내게 타이완 Trip의 물꼬를 터준 臺中の 김선생, 처음이지만 기투합된 조진생 부부, 밤새워 얘기 나누며 격려했던 臺南의 김선생 부부, 高雄의 김선생 부부와 현지인 공동체, 臺東의 여장부격인 진 선생, MK 선교사로서 장래가 촉망된 臺北의 박교수 부부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협력했던 思恩堂의 타이완 동역자들이었다. 난 당신들이 자랑스럽다. 감사하다. 힘내라. 비행기는 항공을 향해 높이 치솟았다. 밖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이내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포르모사(Formosa:아름다운 섬)여 안녕 (再见: Zàijian)!

Jrsong007@hanmail.net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10)

루이스의 가정교사 커크패트릭 선생

C. S. 루이스의 생애를 추적하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윌리엄 탐슨 커크패트릭(William Thompson Kirkpatrick) 선생이다. 두 아들의 대학 입학 학을 걱정하던 C. S. 루이스의 아버지 앨버트 루이스(Albert Lewis)가 자신의 옛 스승에게 자신의 두 아들의 진학지도를 맡겼다. 그 스승이 바로 C. S. 루이스(Lewis)의 삶에 지대한 영향일 끼친 W. T. 커크패트릭 선생이다.

앨버트 루이스는 자신이 다녔던 학교의 교장이었던 커크패트릭 선생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다. C. 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커크패트릭 선생을 처음 만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루이스는 “우리는 내내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 W. T. 커크패트릭은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C. S. 루이스가 자신의 영적 자서전인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자신의 대학 입학 개인 교사(Crammer)

였던 커크패트릭 선생을 언급하지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작은 대학예비학교 교장이었고 대학입시를 지도했던 가정교사로 살다 세상을 떠났다.

커크패트릭을 영국의 역사학자 이안 윌슨(Ian Wilson)이 탐구했다. 그는 전문 역사학자답게 면밀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커크패트릭의 성장 과정과 개인적인 삶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그리고 헌팅턴 대학교 역사학 교수였던 폴 E. 미켈슨(Paul E. Michelson)박사도 “위대한 노크 선생님(The Great Knock)”이라는 소논문에서 커크패트릭 삶을 담았다. 브렌톤 디키슨(Brenton Dickieson)도 커크패트릭(W. T. Kirkpatrick) 선생의 삶을 자세하게 추적하였다.

C. S. 루이스(Lewis)에 의하면 루이스 자신은 커크패트릭 선생으로부터 논리적 사고를 배웠다. 선생님과 그의 첫 만남부터 시작된 논리적 사고 훈련은 루이스의 저술과 강연활동에 든든한 기반을 제공했다. 또

한, 루이스는 커크패트릭 선생으로부터 헬라어, 라틴어, 이태리어와 독일어를 배웠고 커크패트릭의 아내로부터 프랑스어를 배웠다. 고전어와 현대 유럽어는 C. S. 루이스의 학문 활동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윌리엄 탐슨 커크패트릭은 1848년 1월 10일 C.S. 루이스의 고향 벨파스트(Belfast)시의 근교인 보드밀스(Boardmills)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커크패트릭(James Kirkpatrick)은 있었는데, 그의 가족들은 농업으로 유명한 캐릭매드로(Carrickmaddyroe)에서 벨파스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아 조상들은 농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커크패트릭 집안은 전통적으로 장로교인이었다. 보드밀스에 이주한 후에 보드밀스 제일장로교회에 출석했으며 많은 가족의 무덤이 교회 묘원에 있다. 윌리엄 탐슨 커크패트릭과 그의 누나 안나 뮤센 커크패트릭(Anna Mussen Kirkpatrick) 두 사

람이 보드밀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커크패트릭 선생의 아버지 제임스 커크패트릭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그래서 아들들을 벨파스트로 유학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W. T. 커크패트릭은 벨파스트의 명문 퀸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영어, 역사, 철학 등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고, 최우수 논문상을 받으며 졸업을 했다. 졸업 후 몇 년 간의 그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벨파스트지역 장로교 목회자 양성을 했던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목회자 과정 공부를 하며 그 지역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커크패트릭은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다 마쳤고 목회자 자격증을 취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벨파스트지역 장로교 장로교 회의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커크패트릭은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다 마쳤고 목회자 자격증을 취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벨파스트지역 장로교 장로교 회의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커크패트릭은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다 마쳤고 목회자 자격증을 취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벨파스트지역 장로교 장로교 회의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있고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교육자로 커크패트릭은 신설 루간 학교(Lurgan college: 대학교 입학 전문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그의 첫 도전은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교장으로 선발된 볼거(E.V. Boulger)와 학교 형편을 살필 때 그가 미흡, 비교육적 전공자, 그리고 목회자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3년 후 볼거(E.V. Boulger)가 학교를 떠날 때 커크패트릭이 루간의 교장으로 취임했다. 학교 형편은 좋지 않아 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에 16명이 등록했다. 루간의 2대 교장으로 취임한 그는 실력을 발휘했다. 교장으로 취임한 지 2년 만에 재학생은 61명이 되었고, 기숙 학생도 25명이 되었다.

커크패트릭 교장의 실력은 진학지도였던 것 같다. 그는 우선 기존 시험이 학생들의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험제도를 개발했다. 커크패트릭 교장 취임 이후로 명문대학 진학



강태광 목사
(월드웨어USA대표)

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시기에 C. S. 루이스 아버지 앨버트 루이스가 루간에서 공부했고 커크패트릭의 교육법을 신뢰했고 훗날 두 아들의 진학지도를 맡게 되었다.

당시 학교 이사회 서류를 살펴보면 커크패트릭은 학교 운영은 다소 서툴렀던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입시 지도에는 탁월했다. 많은 수재가 그에게 물려들었고 매년 아주 탁월한 학생을 배출했다. 그의 제자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다정다감한 선생이었다고 그를 기억한다.

C. S. 루이스가 커크패트릭 선생을 만날 때는 커크패트릭 선생은 검증된 입시전문가였다. 그러므로 첫 만남부터 신뢰감을 갖고 교육을 받았다. 루이스는 커크패트릭 선생으로부터 인문학을 위한 중요한 학문적 도구, 논리, 고전어 그리고 현대 유럽어들을 습득했다. 아울러 유능한 입시전문가인 커크패트릭 선생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다.

C. S. 루이스는 W. T. 커크패트릭 선생이 무신론자였다고 소개한다. 한때 장로교 목사 후보생이었고 설교자 자격을 얻었던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 무신론자가 되었는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여하간 커크패트릭은 불신자가 되어 루이스를 지도하며 루이스의 불신 여행을 심화시켰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어떠한 자가 천국에 영광의 상을 받는가? (마 5:43-48) 찬 425장

하나님의 인격을 이 세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삶을 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죄의 성품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다. 내 안에 살아 있는 죄의 성품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워하고 복수로 나타난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시는 인격을 받아 사용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인격의 능력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다. 오늘도 나의 것을 사용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것을 사용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임을 알도록 깨어 있으라. (마 6:1) 찬 182장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산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만하면 사람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웃의 인격도 존중하지만, 성령으로 항상 같이 하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에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게

대우하여 주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에게는 너무나 주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불신하고 하는 언행을 하면서 살아왔다.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주인 앞에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면 주인 앞에 무서운 죄가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보여 드리도록 항상 노력하여 살아야 한다. 주인이 나중에 결산하여 영광의 상을 주신다.

수 나를 향한 나의 주인의 소원을 나의 소원 기도가 되게 하라. (마 9-13) 찬 323장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신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다. 아버지가 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이 질서에서 탈선하지 말아야 한다. 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섬김의 삶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장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다. 아들은 항상 계시는 아버지를 알고 모시고 의식하고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아들 장자의 삶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름을 더럽히는 탕자로 살지 말아야 한다. 죄는 질서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게 한다. 타락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목 혈루증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다. (마 9:19-22) 찬 413장

12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여인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그가 주님에게 나오도록 불러내신다. 주님에게 나가면 나오리라 하는 믿음을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소망이 낙심에 빠져 있는 자신을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가까이 나오게 부르셔서 구원

하여 주셨다. 이와같이 오늘도 주님은 일 하신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주님에게 가까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오늘도 어려운 중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잘 살펴보라. 어떠한 믿음으로 나를 위로하고 소망 중에 있게 하시고 불러내시는지를 잘 보라.

금 나면서 맹인이 된 자의 눈을 열어 주시다. (마 9:27-30) 찬 344장

사람이 볼 때 소망이 있을 수 없는 어둠에 살고 있는 맹인들에게 주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맹인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는 것이다. 믿음을 따라 나오고 믿음을 따라 고백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말하라.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신다. 잊지 말아야 한다.

토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의 지체에게서 나타나신다. (마 10:12-13) 찬 19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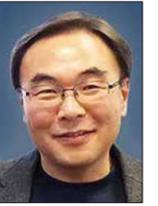
사람의 말을 통하여 죄가 나타나고 사망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삶을 죽이는 사망은 죄에서 나타나는데 오늘날 우리를 죽이는 죄가 말을 통하여 흉수를 이루고 있다. 반대로 구원받은 자에게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알고 더욱 풍성하게 흘러나가게 하여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의 땅에 죄가 가득한 곳에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사망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생명이 흘러 주님의 치료하심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라. 우리는 주님의 지체다.

기독교교육 (34)

기독교교육과 자원봉사자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유급사역자들을 통해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설교와 심방으로부터 주방운영과 주차장관리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사역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과 성가대원들까지 사례를 하려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사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모든 사역을 유급사역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교회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창 1:28; 엡 4:16). 또한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십니다(벧전 4:10-11).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찾아 그들이 잠재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임무를 맡기고,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찾는 방법 중 하나는 관찰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의 정기적인 활동과 특별한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와 자세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관찰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참여자들의 관심사와 필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를 모집하는 일은 사역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봉사자의 관심과 필요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파악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면 모집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를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교인들이 스스로 관심사, 재능, 경험 등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문지를 활용하여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나 세미나 등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은 각종 사역을 위한 모집대상자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교인들은 스스로의 잠재력과 더불어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의 분야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사역에 지원할 동기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사역에 임하고 있는 봉사자들입니다. 현 봉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과 보람을 공유함으로써 친구들이 사역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봉사자들로 하여금 교회 친구들의 이름을 제출하게 하여 모집대상자들의 명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봉사자 스스로가 새로운 봉사자가 될만한 사람을 눈여겨 보게 하는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새로운 봉사자를 확보하는 일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지원입니다. 목회자가 예배시간에 사역의 기회를 소개하고 사역자의 필요성을 진솔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봉사자 모집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목회자는 교회의 목적 달성에 있어 사역의 중요성과 사역을 통해 경험하는 성취감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과로 인하여 얻어지는 성장 등을 강조함으로써 사역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봉사자를 선정하는 과

정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9:37-38에서 예수님은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적합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봉사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봉사자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충성심, 의지, 능력, 팀워크 등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런 자질들을 반영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입니다. 단지 사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사역에 지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과로와 실망으로 인한 탈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명의식 역시 봉사자 선정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봉사자 선정기준에 따라 후보자들이 정해지면 모집담당자가 후보자들과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는 기도로 시작해서 후보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보자가 말을 사역이 교회의 사명달성을 위해 중요함을 강조하고, 후보자가 열정과 은사가 그 사역에 적합함을 설명합니다. 사역설명서를 제시하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되 헌신의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소통합니다. 사역에 필요한 자원과 훈련에 관해 안내합니다. 봉사자가 사역을 통해 달성하기를 원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후보자가 사역에 지원하도록 요청합니다. 많은 경우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동참여부를 생각할 시간을 주고 지원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모든 후보들로부터 지원서를 받은 후에는 신중하게 선별하여 봉사자들을 정해야 합니다. 우선 교회의 회원자격을 확인합니다. 대개의 경우 교회의 회원이 된지 6개월이 지나야 봉사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음으로는 작성된 지원서를 확인합니다. 지원서에는 개인적인 정보와 경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참고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봉사자의 생활을 다각적으로 평가한 후, 봉사자가 교회의 사역에 적합할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와 면접하여 사역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기도해줍니다.

최적의 봉사자를 발굴하고 모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교인들이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할 발판을 놓게 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리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편지

태국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동역자님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동역자님들께 함께 하시어 주님 은혜 안에 기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5월 14일 태국에서 총선이 치러졌고 그 결과로 제30대 총리로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싌"이 당선되었습니다. 속히 나라가 안정되며 태국이 더욱 발전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방콕신학원 사역 (Bangkok Institute of Theology)

방콕신학원은 그동안 수고했던 언디 교장이 물러나고 지난 4월부터 새로운 교장을 맞이하였습니다. 미국에서 36년간 목회 사역하다가 은퇴를 앞두고 귀국한 풍썩 림팅위랏 박사가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으며 7월 3일 취임식을 했습니다. BIT 는 지난 6월 5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B.A. in Christian Theology) 학사과정에 16명 그리고 (M. Div.)석사과정에 13명이 입학하였습니다. BIT 신학교가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을 배출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태국 한인교회 교인 한 분이 신학교 전학생과 교수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초대하여 고기 뷔페를 대접하고 학생들에게 소정의 용돈과 신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여 신학생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에도 방콕신학교는 정부의 점검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8월부터 예전에 구약을 가르쳤었던 네피 교수가 다시 교수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기독교 지도력 (BA)과 전도와 교회성장학(M.Div.)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사역 (Church Planting) 풍썩 박사 교장 취임식 후

지난 8월 7-11일까지 대전 새미래교회 청년 단기 팀이 람쑹교회와 예백국제교회에서 대학내 전도, 한글과 한식 그리고 주



일학교사역 등을 하여 코비드팬데믹이후 다시 단기선교사역을 은혜롭게 진행하였습니다. 쟁기터룬교회는 6월 25일 설립 29주년, 탄땀방번 교회는 27주년을 맞이하여 축하했습니다. 구복교회는 성전 건축 마무리하였으며 오는 9월 24일 헌당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롬꼴라오교회 사역자인 보야스 전도사가 지난 5월 말로 사임을 하고 새로운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임 후 당분간 말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개척정신이 강하고 충성된 사역자가 속히 부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난 6월 22일에 폰쁘라탄교회의 리빠 전도사와 아카산족 자매의 혼례식에 축하하러 김봉순 선교사와 함께 북태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구건물이 예배드리기 부적절하여 새 장소로 작년 말에 이동하여 그 건물을 8월 25일 구입하였습니다. 탄치윙교회도 갑자기 교인 수가 많아져서 건축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일단 장소를 넓히기 위하여 건물내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들도 최선을 다하며 전도와 부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Mission Supporters)

저희는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진행하지 못했던 세계선교동역기구 연차 총회와 이사회 선교 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동역자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잠실동교회, L.A.-동부장로교회, 달라스-빛내리교회, 그리고 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담임목사님과 당회원님들께 장소와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주셔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기도 제목

- 1. 신학교와 학생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성과 지성을 갖추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되도록
2. 롬꼴라오 교회에 새로운 복음 전도에 열정 있는 교역자가 속히 부임하도록
3. 18 번째 교회 개척을 위해 준비된 사역자를 만나도록
4. 세 자녀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태국에서 신영선-김봉순 선교사 드림

선교후원자들과의 모임 (Meeting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추베이 쑹 종족

▲ 인구 인구 140,000명

▲ 종교 민족종교 80%, 무교 18.8%, 복음화를 1.2%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남부 윈난의 산악 지역에 거주한다. 주로 농사를 지으며 교육 수준은 낮다. 술을 좋아하여 함께 마시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 가족주의가 강해 폐쇄적이다. 불교와 정령숭배가 혼합되어 있다. 집집마다 조상 신당이 있고 조상과 정령을 달래기 위한 각종 의식을 한다.

▲ 기도제목

- 1. 추베이 쑹 종족 사람들이 알콜 중독과 정령숭배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2. 추베이쑹어로 성경 번역이 일어나도록
3. 학업과 일로 외국에 있는 추베이 쑹 종족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제자가 되어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4. 소수의 성도들이 가족과 친구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베드로 진서 7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굿모닝하나님

얼마 전 작은 글을 하나 읽고 재미나다 생각도 하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은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존 스토틀 목사님에 대한 누군가의 회고였다. 그 분은 스토틀 목사님이 80세가 넘게 살아가시는 동안 그와 친분을 나누었는데 스토틀 목사님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굿모닝 하나님 굿모닝 예수님 굿모닝 성령님. 그만 큼 하나님을 순간순간 피부로 느끼고 싶었던 것일 게다.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힘들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야 늘 안녕하신데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굿모닝 하나님은 참 편리하다. 이 글을 읽은 후부터 나는 스토틀 목사님은 저녁 기도를 그렇게 드렸는지 모르나 나도 아침에는 굿모닝 하나님하고 저녁에는 굿나잇 하나님을 했다. 스토틀 목사님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내가 예상치 못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굿모닝 하나님 하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 아내 가족을 만났을 때 굿모닝 하듯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나 역시 굿모닝 하나님 하지 않을까. 그 뿐인가? 굿모닝 스토틀 목사님 굿모닝 아버지 어머니 아브라함 다윗과 함께 인사하겠지. revpeterk@hotmail.com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Langone Health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캐나다 \$130 한국/동남아시아 \$240 유럽 남미 아프리카 \$240

인/터/뷰

탈북가족 구출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온드 유토피아’ ... 제 39회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 수상작



왼쪽부터 황득연 간사, 김성은 목사, 이소연 대표가 함께 사진촬영을 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비온드 유토피아”는 제39회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고, 부산 국제영화제에 포함 세계 영화제들에 초청받았으며, 10월 미국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는 10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을 구출한 김성은 목사와 갈렙선교회 이야기다.

9월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가장 권위 있는 인권운동가들의 포럼인 "Oslo Freedom Forum in New York"에서 연설을 앞둔 김성은 목사(갈렙선교회 대표)가 뉴욕을 방문했다.

본지에서는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를 방문한 김성은 목사, 황득연 간사(Associate Producer), 이소연 대표(비온드 유토피아 출연자, 탈북민)를 만나보았다.

갈렙선교회는 어떤 선교회인가요?

갈렙선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난 24년 동안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길거리 고아로 살아가던 아이, 장기말매시장으로 팔려가 죽음을 앞둔 고아들, 정치범으로 몰려 죽음을 앞둔 일가족을 포함 1000명 이상의 탈북민을 구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구출하는데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탈북민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렙선교회는 북한 내부영상을 찍어 국내외 언론과 공유하며 북한

내 인권 실상을 알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갈렙선교회의 사역을 담은 “비온드 유토피아”라는 다큐멘터리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 포함 세계 영화제들에 초청받았으며, 10월 미국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가장 권위 있는 인권운동가들의 포럼인 "Oslo Freedom Forum in New York"에서 갈렙선교회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비온드 유토피아(Beyond Utopia)는 어떤 영화인가요?

비온드 유토피아(Beyond Utopia, 감독 매들린 개빈)는 탈북 가족의 구출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 39회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 했습니다. 복잡한 북한 정치 상황과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 문제, 대한민국의 선교단체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생명을 살려내는 과정을 속도감 있고 흥미롭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또 기독교가 불법인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북한 주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영화 ‘비온드 유토피아’는 코로나19 직전 탈북민 가족의 구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 중 일부가 탈북 했다는 이유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은 유배 명령을 받은 한 가족이 살기 위해 도

망쳐 무작정 백두산을 넘었고, 중국 농부에 발견 돼 갈렙선교회(대표 김성은 목사)에 구출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제 곧 10월 23일과 24일 단 이틀간 미국 전역 600개 이상의 영화관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의 영화가 성행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고통 받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품이기에 많은 크리스천들의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고편을 유튜브에서 "Beyond Utopia Trailer"로 검색하여 보실 수 있으며 구글 검색을 통해 영화 상영관과 정보를 보실 수 있고 티켓 구매가 가능합니다.

비온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이소연 대표님의 사연이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군인이었던 저는 한 달에 사탕 3알을 겨우 살 수 있는 월급을 받고 살아가던 중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탈북하였습니다. 북한에서 배고파서 조그고 앉아있는 자식과 가난을 한탄하며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두고 생활비라도 얻고 싶어 선택한 길입니다. 하지만 탈북의 길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두려움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중국에는 탈북한 여성들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브로커들이 있었고 한국까지 오는 루트는 중국, 라오스, 태국 등 3국의 밀림을 브로커에게 의지해서 넘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생사의 길에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북한에서 기도라는 말조차 몰랐던 저는 너무도 살고 싶어 중국을 숨어서 횡단하는 그 길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제발 살려달라고, 연약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울부짖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기도였고 그 작은

기도에 하나님은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길에 보탬이 되고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방송출연, KBS 라디오, 국군방송에 출연하였고 고시원 청소, 서점 아르바이트,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해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면 제게는 북한에 남겨진 아들을 데려와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브로커 비용을 마련하고 브로커들을 통해서 북한의 아들을 데려오려고 하던 중 중국까지 온 아들은 ‘갑자기 제게 북한 가서 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과 많은 나라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들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아들을 설득하여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던 중 아들은 중국 공안기관에 잡혀 북한으로 복송되었으며 모진 고문 이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의 브로커들을 통해 아들의 소식을 알아본 결과 아들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들에 관한 내용은 10월 미국 개봉을 앞둔 다큐멘터리 “비온드 유토피아”에 담겨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 더 많은 분과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게 소원이 있다면 아들을 구출하여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또 아들과 손잡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같은 아픔을 지닌 수많은 탈북 여성들을 치유하는 사역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 있는 제가 먼저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상처를 가진 이들을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듬고 눈물을 갈



이 흘릴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김성은 목사님께서서는 탈북민 지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2000년 여름, 장마철이면 굶주려 죽은 시체들이 두만강을 따라 떠내려 오는 가운데 “같은 동포끼리 같이 좀 삼시다.” 구걸하는 북한 ‘꽃재비’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자인 지금의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아내는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신학을 하여 지금은 함께 천안서평교회 담임목사로 저와 함께 사역하게 되었으며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탈북민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탈북을 돕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글과 광야, 바다를 통해 몇 개국을 거쳐야 하는 위험한 일기에 만약 처음부터 이 사역이 이런 일인 줄 처음부터 알았다면 절대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큰 아픔은 탈북을 돕는 길에 7살 된 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일이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네 아이는 천국으로 왔지만, 여전히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북한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기에 반드시 그들을 구해야 한

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탈북자 사역을 감당해 왔고,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을 구출해 냈습니다. 때로는 탈북자들을 구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목뼈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 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동포들을 향한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저는 특히 앞으로 북한 고아들과 아이들의 탈북을 돕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남한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소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탈북민을 구출하는 일은 실제로 큰 비용이 항상 드는 일기에 이번 비온드 유토피아 영화가 나가게 됨으로써 북한의 실상과 인권문제를 세상에 더욱 알려서 탈북민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손길이 많아 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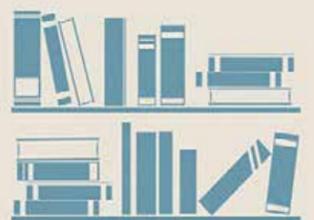
귀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김성은 목사. 그는 “이런 활동을 통해 탈북을 돕는 길이 막히거나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며 탈북 사역에 있어 아무것도 손길 이유가 없고,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많은 탈북민을 구출해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전했다.

▲후원 사이트: <https://give.calebmissi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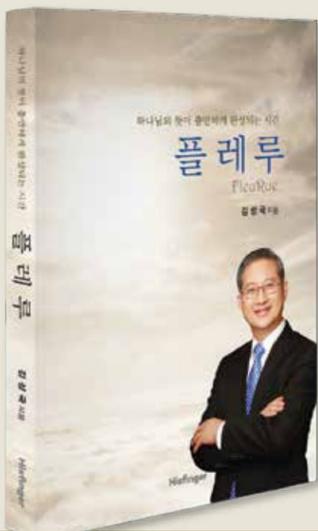
(김재상 기자)

Hisfinger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사 히즈핑거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실시간 진행협의
출판사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립니다.
상담 건적 계약 이후 모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저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출판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플레루 Fleure 김성국 목사 신간 컬럼집

